

학제개편 두고 학교-총학 갈등

총학 학내 곳곳서 시위, 학교 측 학제개편 예정대로 진행

오는 5월 말 발표되는 2010학년도 입학정원조정안을 두고 총학생회(이하 총학)와 대학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총학은 학교 측에 학제개편 반대와 학교-학생 간 협의기구 구성을 촉구하며 학내 곳곳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편 학교는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예정대로 학제개편을 진행할 계획이다.

학제개편 문제는 지난 3월 6일 학교 측이 '2010년부터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는 독어문화학과(이하 독문과)의 입학정원은 학교 차원에서 검토하여 조정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문과대에 보낸 것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학과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학정원 관리시스템이 처음으로 가동돼 학과별 순위가 발표되고, 하위 15% 평가를 받은 학과들 중 독문과가 처음으로 사실상 폐과 위기를 맞은 것이다.

이에 대해 문과대 교수회측은 지난 3월 25일 학교의 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지난 4월 1일 해오름제 때 총학은 이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학자요구안을 학교에 제출한 바 있다.

이후 지난 4월 18일 보도된 KBS와 최순열 학사부총장의 인터뷰에서 나온 오보로 인해 독문과 학생들이 항의시위를 벌였고, 1인 시위는 문과대를 비롯한 각 단과대 학생회장들의 참여로 이어졌다.

지난 4월 29일에는 계절학기 수강료 인상과 학자요구안과 관련해 총학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총학은 학교의 일방적인 학사행정을 비판하며 총학과의 의사결정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같은 날 학교 측이 개최한 학자요구안 설명회에서 학교 측은 지난 해오름제 때 총학이 학교에 제출한 학자요구안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학

과 측은 설명회를 통해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다 경쟁력 있는 학교에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밝혔다. 또한 학생들에게는 학교 전체의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감안해 달라며 학생들의 이해를 구했다.

또한 지난 7일에는 총학과 문과대 학생회가 개교기념식이 열린 상록원 앞에서 학제개편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날 총학과 문과대 학생회는 상록원 3층에서 열린 개교기념식에 참석해 오영교 총장에게 직접 항의하러 했으나 학교 측은 제지로 인해 상록원 1층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학제개편 반대한다', '우리들이 주인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학제개편에 대해 항의했다.

또한 총학은 지난 13일 팔정도에서 토론회를 열고 학교와 총학이 공개된 자리에서 토론하길 요구했다

나 학교 측 관계자들이 불참해 토론 회가 열리지 못 해, 본관 앞에서 총학이 시위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한편 총학은 지난 12일부터 후문에서 촛불 문화제를 열어 학제개편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오늘(18일) 오후 6시 30분 팔정도에서는 촛불 문화제 집중판을 열 계획이다.

총학이 수차례 항의시위를 하는 반면, 학교 측은 이에 특별한 대응 없이 학제개편을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홍성호 학사지원본부장은 "학제개편과 관련해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항의할지라도 입학정원관리시스템은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철학과와 윤리문화학과와 예를 들며 "기초학문은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만큼, 폐지보다 통합과 학문융합과 같은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하는 방법을 구상하겠다"고 밝혔다. 정웅재 기자 wonder@dongguk.edu



불대 릴레이 108배 불교대 학생회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팔정도 불상앞에서 학사지원실과 학생회실, 그리고 강의실이 분리되어있는 상황에 대해 "분해된 불대 구성원들의 공간을 돌려달라"는 구호로 릴레이 108배를 진행했다. 김윤수 기자 yshero21@dongguk.edu

조선일보 대학평가, 우리 대학 국내 26위

연구 부분이 60% 비중 ... 보다 많은 연구 논문 발표 필요

우리 대학이 12일 발표된 조선일보 대학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총점 38.7점으로 국내 순위 26위, 아시아 순위 134위에 랭크됐다. 조선일보 대학 평가에는 국내 106개 대학을 포함한 아시아 11개국 463개 대학이 참여했으며 평가는 2008년 10월 1일까지의 자료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조선일보 대학평가는 연구 능력이 60%, 교육 수준이 20%, 졸업생 평가가 10%, 국제화가 10% 씩 반영돼 사실상 연구 능력이 순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으로 부각됐다. 결국 전체적인 순위를 높이기 위해선 교수들이 영향력 있는 우수 논문

들을 많이 등재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대학의 교원 당 논문 수는 평균 1.0편으로 국내 대학 중 29위다. 학계 평가는 21위, 논문당 인용수는 27위에 랭크 됐다. 이에 비해 우리 대학의 졸업생 평판도는 13위, 해외로 나가는 Out bound 교환 학생 비율은 15위로 다른 분야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학문 분야는 우리 대학은 타 분야에 비해 불균형학과 연극영화에서 강한 면모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종합 순위에선 총점 94.9점으로 KAIST가 국내 순위 1위, 아시아 순위 7위를 차지했으며 아시아 대학

중엔 홍콩대가 100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에선 평가에 따른 대책을 강구 중이며 우리 대학은 13일 오영교 총장 주재로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선 학교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결국 연구 업적과 우수한 교수, 국제화밖에 없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당장 이번 학기부터 공개 초빙 대신 '수시 특별 초빙을 통해 일류 교수들을 채용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한편 이번 평가는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가 통합되어 실시 됐다. 이영호 기자 blueeagle@dongguk.edu

GTEP 사업단 해외전시회 개최

글로벌무역양상사업단(이하 GTEP)이 국내 대학 최초로 단독 해외 전시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한국 기업들의 공급시장 진출과 상품 및 기업 홍보를 위해 "2009 KOREAN WEEK IN ULANBAATOR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몽골 ICB대학 컨퍼런스 홀 실내 20개 부스에서 진행됐으며, 몽골 수출입 및 투자 희망기업 약 10개사(우리대학 협력업체 우선 선발), 몽골 현지 기업 10개사가 참가했다.

참가 업체들은 기업 홍보뿐만 아니라 전시회 참가 바이어 관리, 참여업체 부스 지원 및 관리, 몽골 한인회와의 교류 협력 체결 및 현지 기업 전시회 참가 유치 등의 지원을 받았다.

GTEP의 주선으로 참가하는 업체는 의성후마늘농조합, (주)청아띠, LAKASA, (주)어플리컴, (주)센텔라, (주)하이즈, (주)리텍 등 총 7개 기업이다. 이 기업들은 동국대 GTEP 사업팀과 모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그동안 GTEP과 수출업무에 대한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 온 업체들이다.

미래기획위원회 제1차 전체 회의 개최

2030프로젝트 현실화 위한 실질적 방책 마련 논의

우리대학의 중장기적인 비전과 발전계획을 마련할 미래기획위원회(이하 미래위)가 지난 14일 교무회의실에서 1차 전체회의를 가졌다. 1차 전체회의에서는 미래기획, 학문구조, 경영전략 3개 분과의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 분과별로 기초적인 비전 수립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해 분과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미래기획 분과는 향후 학문과 대학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에 앞서 우리대학의 정체성과 역사를 분석해 앞으로의 비전, 인재상과 이미지를 재정립하기로 했다.

학문구조 분과는 중장기적인 학문구조를 개편하고 우리대학을 특성화·국제화·개방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연성 있는 교육과정, 교육과정 혁신, 교수역량 고도화, 평생교육 강화등을 실현하기로 발표했다.

경영전략 분과는 108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경영능력 강화를 위해 재정 내실·규모화하고 안정적인 재원(Cash cow)마련 등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등록금 수입 적정·안정화, 교육육 부동산 활용, 산학협력 R&D, 학교기업 강화 등 실질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이어진 각 분과위원들의 자유발언 자리에서는 분과위원들이 미래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경영전략 분과 한광아(건축공학) 위원은 "2030이라는 중장기적인 비전과 실질적인 업무를 연계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체회의가 실질적 발전계획을 마련할 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비전 분과 강삼모(경제학) 위원은 "미래위가 장기적 비전을 제시해야 하지만, 단기적인 발전방안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 확보에 어려운 점이 많은 만큼, 현재의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문구조 분과 조상식(교육학) 위원은 3개 분과의 유동적 연계를 강조했다. 또한 현 시점에서 대학의 흐름을 파악하고 각 분과 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문구조 분과 김준(멀티미디어학) 위원은 현재 재단의 재정지원의 한계를 지적하며 미래비전 제시에 앞서 재단의 적극적인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래비전 분과 윤재웅(국어교육) 위원은 업무적 효율성을 위해 분과 위원들이 특정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위원별로 미션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래의 경영진에게도 미래위가 제시한 비전이 실천될 수 있도록 탄탄한 기획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면(전략기획본부장) 경영전략분과장은 비전을 만들기 위해 앞서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논의태이블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량을 증가시키는 데 치중하기보다 현재의 재정구조를 재정비하고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밝혔다. 미래위는 향후 교내 현황 분석과

해의 우수대학 벤치마킹, 전문가 초청 미팅 등 각종 자료 분석을 통해 오는 9월까지 1차 중간보고서를 발표한다. 또한 오는 6월 중 2차 전체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를 마친 이후에는 미래위가 초청한 이태수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장을 초청해 '학문과 대학의 미래'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정웅재 기자 wonder@dongguk.edu

목격대동제 오는 19일 부터 개최

목격대동제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린다. 이번 대동제는 백상대제전, 광란페스티벌을 비롯해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우선 오는 19일 12시 팔정도에서는 동국 대토론회가 열리며 비빔밥 1,800인분을 나눠줄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6시 대운동장에서는 백상대제전이 열린다. 20일에는 오후 7시 대운동장에서 광란페스티벌을 개최한다. 1부는 돌+1 콘서트, 2부는 Open your mind로 진행될 예정이다. 21일 오후 5시 대운동장에서는 광란페스티벌이 열린다. 1부는 집단시낭독, 퀴즈대회, 2부는 락 페스티벌이 열린다. 또한 동아리 연합회와 각 단과대, 과 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축제행사를 벌인다.

제245회 이사회, 오는 25일 개최

신임 이사장 선출될지 학내·외 관심 모아

제245회 이사회가 오는 25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영배 스님의 이사 해임 및 이사장 선출을 비롯해 08년도 회계 결산보고 등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 13일에 열린 제244회 이사회에서는 '이사 해임 및 이사장 선출'을 안건으로 다루려 했다. 하지만 이사회 소집 요구 등의 서를 제출했던 7명의 이사들이

불참하고 6명의 이사들만 참석하여, 의결정족수인 과반을 넘지 못해 자동 유예됐다. 지난 이사회에서 영배 스님은 "소남의 거취문제에 대해 우리대학이 또다시 이해 다툼의 장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정쟁의 당사자들이 동반사태할 것"을 주장 하며 사실상 이사장직을 사퇴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바 있다.

- 1 지/면/안/내
- 2 미래기획위원회 1차 전체회의
- 3 홍영표, 조승수 동문 인터뷰
- 4 미래대학과 사회② - 미래의 학문구조
- 5 출판부 신간 소개
- 8 하늘마루 즐기

동대신문의 자발적 구독료 납부 운동에 동참해주십시오!



6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동대신문이 자발적 구독료 납부운동을 추진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납부 운동이란 건전한 대학언론 육성과 언론인 양성을 위해 학내 구성원과 동문 등을 대상으로 구독료 납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동대신문은 1년 구독료를 1만원으로 정하고 동대신문을 우편을 통해 구독하고 계신 독자들을 대상으로 구독료 납부를 요청드립니다. 동대신문은 1950년 창간돼 현재 지령 1475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동대신문은 매회 5,000부 이상을 동문과 전국의 고등학교, 도서관, 장학재단 등에 발송하고 있으며 학교소식을 공급해 하시는 많은 동문들에게 학교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령 2000호를 바라보는 동대신문이 보다 많은 독자와 만나고 미래의 언론인을 키워낼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 연간구독료 : 1만원
2. 입금계좌 : 제일은행 114-20-734228 (예금주 ; 동국대학교)
3. 입금시 성명과 졸업연도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미디어센터

의료클러스터 규모 대폭 확장

BT창업보육센터 선정으로 51억 지원

우리대학이 경기도 고양시 내 진행키로 했던 의료클러스터 사업의 규모가 대폭 확장됐다. 기존의 의료클러스터 규모 8264.5㎡에서 무려 6611.6㎡가 확장된 14876.1㎡의 의료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것이다. 이번 의료클러스터 사업의 규모 확장은 우리대학이 창업보육센터 신규 건립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른 성과다. 규모가 확장된 의료클러스터는 교육공간 중심의 강의동 건물 4958.7㎡과 산학협력관 8264.5

㎡, 임상시험센터 1652.9㎡까지 총 14876.1㎡이다. BT 창업보육센터는 산학협력관 내에 들어서게 되며, BT 창업보육센터 내에는 약 80여개의 기업을 입주시킬 예정이다. 현재 교육공간 중심의 강의동 건물과 산학협력관, 임상시험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8층까지의 높이로 설계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의료클러스터 건물은 본래 'ㄱ'자 형태로 지어질 계획이었으나, 건물의 규모 확대에 의해 건물 형태는 'ㄷ'자로 변경됐다. 형태의 변경

후에도 각각 공간을 분리하여 사용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 이번 확장된 의료클러스터 단지는 오는 25일 개최되는 제 245회 이사회에 승인을 받게 되면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우리대학은 지난달 20일 BT 창업보육센터 지원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중소기업청 30억 원, 경기도 6억 원, 고양시로부터 15억 원 등 모두 51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김활란 기자
lan@dongguk.edu

전자불전연구소, 원효대사 스토리뱅크 개발

문광부 창작소재개발 사업 선정, 2억 9천만원 지원받아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이하 전자불전연구소)가 화해와 소통의 자유인 원효대사를 소재로 다룬다. 스토리뱅크 개발사업에 나선다. 전자불전연구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공모한 2009년 문화원형 창작소재 개발 사업에 선정돼 협약을 마치고 사업을 수행하게 됐다 고 밝혔다. 주식회사 여금과 공동으로 수행하게 될 이번 과제는 총 사업비 2억 9천만원의 규모로 추진되며 이중 지원금이 1억 7천만원이고 나

머지는 전자불전연구소와 (주)여금이 분담한다. 과제 수행기간은 오는 12월 18일까지이며 참여인원은 주관기관 14명, 참여기관 9명 등 총 23명이 참여하게 된다. 전자불전연구소는 원효대사를 통해 역사속의 원효, 설화속의 원효를 소재로 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게 된다. 또 원효를 중심으로한 다양한 이야기를 발굴하고 분석하여 시놉시스 구조로 분석하고 조합하여 무한한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는 계획을 갖고 높은 활용도를

갖춘 극적인 캐릭터로 영상, 공연이 분담한다. 과제 수행기간은 오는 12월 18일까지이며 참여인원은 주관기관 14명, 참여기관 9명 등 총 23명이 참여하게 된다. 전자불전연구소는 원효대사를 통해 역사속의 원효, 설화속의 원효를 소재로 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게 된다. 또 원효를 중심으로한 다양한 이야기를 발굴하고 분석하여 시놉시스 구조로 분석하고 조합하여 무한한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는 계획을 갖고 높은 활용도를

정용재 기자
wonder@dongguk.edu

'스물 한 살' 농구부의 아쉬운 준우승

전국대학농구대회 결승전서 중앙대에 석패



평균 연령 스물 한 살의 우리대학 농구부가 지난 8일 오후 2시 김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MBC배 전국대학농구대회 결승전에서 중앙대에 79대 69로 아쉽게 패하며 준우승했다. 우리대학은 이번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김윤태(PG), 김종범(SF), 이상(PF) 등 1학년 세 명을 주전으로 기용하며 경기를 시작했다. 신입생들이 주축이 됐지만 농구

부는 중앙대에 전혀 밀리지 않았다. 오히려 3쿼터 중반까지 11점을 리드하며 이번 대회의 선전이 단순한 '뿔뿔'이 아님을 증명했다. 김윤태 선수는 이전 경기의 활약에 비해 주춤했지만 김종범 선수와 이민재(SG) 선수의 활약은 대만했다. 김종범 선수는 3점슛 6개를 성공시키며 총 24득점을 기록했다. 4학년 이민재 선수 또한 3점슛 3개와 리바운드 6개를 기록하며, 1학년 선수들을 이끌었다. 그러나 3쿼터 중반이후 실책이 연달아 나오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중앙대의 속공플레이와 끝밀이 살아났고 역전을 허용했다. 79대 69. 아쉬운 패배였지만 평균연령 스물 한 살 농구부에게 준 우승은 값진 경험이었다.

'적벽대전' 장진전 감독

지난 11일 특강 가져

영상미디어대학이 주관한 "장진전 조형특강"이 지난 11일 오후 4시 문화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본 특강에 초청된 장진전 감독은 중국 당대 최고 대형화면 연출 전문 감독으로 영웅, 패왕별희, 길발 등 다수 작품을 연출한 바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특강은 장 감독이 연출에 참여한 적벽대전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은 장 감독이 30년간 동영상을 보며 영화영상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적벽대전 영화 촬영 과정 중에 생긴 에피소드나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이어진 자유발언에서는 장감독은 한국영화가 지난 몇년동안 괄목상대를 이루었으며 앞으로의 미래가 밝다고 밝혔다.

중국 허난성 교육청

우리대학과 교류협정

우리대학이 중국 허난성 교육청과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은 우리대학이 허난성의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혜택을 제공한다 는 내용이다. 또한 이번 협정을 통해 중국의 우수한 학생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 학생 선발은 중국 대입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상위권의 성적을 차지한 학생을 선발한다. 선발된 학생은 한국어과정 수업료를 면제받으며, 1년간 월 5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받는다. 또한 선발 학생이 우리대학에 입학할 경우,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전액을 면제해준다.

중국 쓰촨성 덕양시

한국어교육센터 설립

우리대학이 중국 쓰촨성 덕양시에 한국어교육센터를 설립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덕양시에서 우리 대학의 한국어교육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계약은 또 우리대학 김상현(사학)교수와 윤선태(역사교육)교수, 법현스님(경주컴퍼스 한국음악) 등 12명의 교수진이 원효관련 불교사, 역사, 철학, 불교학, 불교미술 등 스토리뱅크, 디지털콘텐츠, 공연무대화 등에 대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계약은 한국어교육센터와 덕양홍덕출국인원문화배훈학교, 스터디인코리아가 함께 체결했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한국어교육센터는 명칭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며 교육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덕양홍덕출국인원문화배훈학교는 교육장을 제공하고 기숙사를 관리하며 학생모집 및 관리를 맡았다. 스터디인코리아는 한국어강사를 선발하는 역할을 맡았다. 수익은 한국어교육센터에 10%, 덕양홍덕출국인원문화배훈학교에 55%, 스터디인코리아에 35%씩 배분한다.

중국 허난성 교육청

우리대학과 교류협정

우리대학이 중국 허난성 교육청과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은 우리대학이 허난성의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혜택을 제공한다 는 내용이다. 또한 이번 협정을 통해 중국의 우수한 학생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 학생 선발은 중국 대입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상위권의 성적을 차지한 학생을 선발한다. 선발된 학생은 한국어과정 수업료를 면제받으며, 1년간 월 5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받는다. 또한 선발 학생이 우리대학에 입학할 경우,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전액을 면제해준다.

동악로에서

김활란 기자
lan@dongguk.edu



각자위정 (各自爲政)

리시템을 계속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학사지원본부는 "입학정원관리시스템의 취지 자체가 특성과를 없애자는 것인데 아니다"라며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사회 수요를 반영해 보다 유연한 시스템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총학이 주장하는 상시적 의사결정기구에 대해서는 "학내에는 일정한 의사결정구조가 있다"며 "모든 과정은 생략된 채 본부의 직접적 대화만을 주장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팽성도에서는 학제 개편과 관련 시위중이던 학생들과 본부 직원들이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이 있거나 등 다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분노한 총학은 팽성도 사건 관련 경위서를 학생들에게 배포했다.

이러한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 부각되는 문제는 학교와 학생간의 갈등이 서로의 감정적 문제로 번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는 학교의 입장만을, 학생회는 학생회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대학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성찰이 필요한 때다.

회전무대

아리가도 한국노 경찰

○...경찰이 시위로 인한 일본인 관광객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시위대 해산 명령을 일본어로만 한다. 이는 우리나라 시위대만 골라 강제 연행하겠다는 취지? 자칫 무차별 진압이라는 국제적 오명을 쓸까 두려워 낸 아이다이?

이에 지나가던 일본인 "한국 경찰들 너무 친절하십니다. 이제 맘놓고 촛불구경 할 수 있으니까."

To. MB

○...애들아-애들아-이리와 봐, 너희 그거 아니? 이 대통령이 국제언론인보호위원회에서 서한 받았다. 서한. 그것도 바로 한국 정부의 언론 압박에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 정부 정책에 반하는 언론을 탄압하더니 결국 이런 국가적 망신을 샀어-! 이런 나라가 어디있니?

79학번 재상봉 행사

지난 16일 열려

79학번 동문 재상봉 행사가 지난 16일 중앙강에서 열렸다. 대외협력단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올해 입학 30주년이 된 79학번 동문들이 모교를 방문해 당시를 회상해보고, 모교의 현재 모습도 살펴볼 수 있게 마련됐다. 중앙강에서 행사를 마친 이후에는 상록원에서 만찬을 가지며 동문들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를 가졌다.

경영학과 50주년 기념식 개최

경영학과가 지난 15일 학과실립 50주년을 맞이해 '경영학과 50년사'를 발간하고 동영50 장학회를 발족했다. 또한 경영관 2층 MBA 202호를 장학회의 의미를 기리고자 '동영50 강의실'로 헌정했다. 경영학과는 50주년을 맞이해 이를 기리기 위해 경영학과와 과거와 현재, 미래가 담긴 '경영학과 50년사'를 발간했다. 또한 경영학과 동창회에서 '동영50 장학회'를 발족해 경영학과 후학 양성에 기여하기로 했다. 현재 장학기금은 약 1억 1천여만원이 조성됐다. 특별한 점은 동영50 장학회에서 마련한 장학기금의 10%를 학교 측이 경영학과 장학금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과대학 3학년 재학생 예비졸업상담 시행

2009학년도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졸업 상담을 시행하여 학생들의 원활한 학업이수를 돕고자 합니다. 3학년 학생은 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학생** : 이과대학 3학년 재학생
- 상담기간** : 2009년 5월 18일(월) ~ 5월 29일(금) - 10일
- 상담시간** : 09:30 ~ 18:00
- 상담장소** : 이과대학 학사운영실
- 상담신청방법**
 - 이과대학 홈페이지(<http://science.dongguk.edu>) 『이과대학 3학년 재학생 예비졸업상담 시행』에 학생들이 가능한 날짜 및 시간 신청 * 수업 공간 시간에 신청.
 - 접수기간 : 2009. 5. 6(수) ~ 5. 15(금) - 10일간
 - 학과별 그룹 상담신청 가능

* 현재처럼 4학년 2학기에 예비졸업사정을 하게 되면 졸업이수 학점에 적오가 생겼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음. 따라서 3학년부터 예비졸업사정 상담을 시행하여 정규학기 졸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과대학학사운영실(☎2260-37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 대 학

2009-1 양성평등문화주간

많이많이 참여해주세요~!

-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09년 5월 20일(수) ~ 21일(목)
 - 장 소 : 팽성도
- 세부 프로그램**

일시	세부 프로그램	비고
5월 2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리주기핸드폰 만들기 성역할고정관념 관련 앙케이트 양성평등의식고취 캠페인활동 성희롱관련 동영상상영(교육과학기술부 제공 DVD) 성희롱 관련 OX퀴즈 	
5월 2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성하이힐체험 여성희자랑발썬대회 남성음식품대기대회 인산부채틀 피임관련내용전시 	
- 행사참여이 특전**
 - 스탬프 행사 : 모든 스탬프를 찍으신 분들 중 100부께 커피교환권 증정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양성평등상담소

2009학년도 순계 명찰순례 참가자 모집

속리산의 대자연을 벗삼아 일상생활에서 느끼지 못한 여유를 느끼며, 자신을 되돌아 보고 불교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미륵신앙의 요람인 범주사에서 진행되는 명찰순례 프로그램을 안내합니다.

- 순례일차** : 2009. 5. 22(금) 15:30 ~ 5. 23(토) 1박 2일.
- 순례시찰** : 범주사(충청북도 보은군)
- 참가대상 및 인원** : 재학생 중 70명(선착순 접수)
- 참가비** : 일금 일만원(W10,000)(환불 불가)
- 신청자 접수기간** : 2008. 5. 12(화) ~ 5. 20(수) - 선착순 접수이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순례 일정**

일 자	시 간	내 용	비 고
5월 22일 (금)	15:30 ~ 19:00	학교에서 출발	정각원 앞
	19:00 ~ 20:00	저녁식사	근처 식당
	20:00 ~ 21:00	범주사 도착, 발배정	
5월 21일 (토)	21:00 ~ 22:00	인제시 및 자기소개	
	22:00 ~	취침 또는 정권(108배)	
10월 4일 (토)	03:00 ~ 03:30	기상 및 세면	
	03:30 ~ 06:00	아침예불, 108배	사찰즉결조
	06:00 ~ 06:00	주변정리	
	06:00 ~ 07:00	아침공양	사찰즉결조
	07:00 ~ 08:00	방정리, 휴식	
	08:00 ~ 09:00	주지스님 법어	사찰즉결조
	09:00 ~ 10:30	사찰주변 관광	
	10:30 ~ 11:00	회향(범주사 출발)	
	11:00 ~ 13:00	속리산 국립공원 관광	
	13:00 ~ 14:00	점심 공양	근처 식당
14:00 ~ 17:00	이별 (학교 도착)		
- 접수 및 문의** : 학생서시스템(본관 3층 : 교내 3043).

학 사 지 원 본 부

중앙도서관 영화상영회 5월 프로그램 안내

중앙도서관에서는 도서관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영화상영회를 개최하오니 동국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기간** : 2009.05.04 ~ 22(토·일요일,공휴일 제외)
- 일시** : 월 ~ 금요일, 14:00~
- 장소** : 중앙도서관 멀티미디어실 A/V실
- 상영영화** :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등 13편

테 마	날짜	영화 / 감독	국가	연장(분)
스승의 날	18일	죽은사인의 시체 / 피터유어	미국	126분
사제지간, 파듯한	19일	꽃피는 봄이오면 / 류정하	한국	128분
행키가 가는 영화	20일	올덴트 오브스 / 스티븐 헤켈	미국	130분
	21일	뮤지 오브헤트 / 웨스 크레이븐	미국	124분
	22일	굿윌 헌팅 / 구스 반스트	미국	126분

- 관람방법** : 직접방문, 안내자료 수령 후 관람(무료)
- 문의** : 중앙도서관 멀티미디어실 02-2260-3450
 - * 영화 소개 자료 및 음료수 제공
 - * 상영영화는 멀티미디어실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중앙도서관

동서사상연구소 논문 모집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에서는 연구소 학술지 『철학·사상·문화』 제9호에 실릴 논문을 모집합니다. 논문 원고는 철학, 사상, 문화에 속한 영역으로 제한하며, 제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 제출일시 : 2009년 5월 20일(수) 까지
- 원고 제출방법 : 다음의 이메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schoi@dongguk.edu (동서사상연구소 최인숙 교수)
- 원고 명기사항 : 투고자의 성명(한글/영문), 소속, 주소, 전화번호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원고 제출 관련사항 : 동서사상연구소 홈페이지(<http://ins-ewt.dongguk.edu/>)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채택된 논문은 2009년 7월 31일 발간 예정인 『철학·사상·문화』 제9호에 수록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동서사상연구소(교내 8838) / 연구소 조교 박영희(019-629-16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서사상연구소



“탄압 이겨낸 힘은 ... 동국 공동체 정신 덕분”

국회의원 당선된(인천 부평 을) 홍영표 동문(행정학 박사과정) 인터뷰

“자신을 넘어서서 이웃과 하나라는 공동체 정신을 잃지 않아야 한다”

4.29 재보선 여야 간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인천 부평 을에서 승리를 거두고 금빛 배지를 달게 된 홍영표 동문. 그는 대학시절부터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지금까지도 공동체 정신이 곧 동국의 정신이라고 말한다. 자신의 철학을 정치를 통해 펼치고 있다.

그는 우리 대학 철학과 출신으로 대우자동차 노동자 대표, 국무총리실 시민사회 비서관, 재정경제부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달 29일 재보선에서 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홍영표 동문의 학창시절은 민주화운동이 전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신체제였던 1977년 대학에 입학한 홍 동문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독재정권의 비민주성을 깨달았다. 그리고 2학년 때는 학생운동을 주도했다. 군대 제대 후 학생운동에 한계가 있다고 느낀 홍 동문은 노동자들의 삶속에 뛰어들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GM대우전신인 대우차에 생산직으로 입사해 노동운동을 했다. “강력한 정부의 탄압 때문에 70년대에는 학생 운동이 단절되었지. 그러나 나

를 비롯해 선배들이 학생운동의 초석을 다지면서 학생운동이 활발하게 됐어”라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수업 중인 강의실 유리창으로 반정부 메시지가 담긴 유인물을 던졌지”라고 말했다. 그는 95년도에 해직됐던 GM대우에 다시 복직해 영구대우 자동차 판매법원에서 근무했다. 그는 영국에서 근무하며 경영과 세계시장에 대한 경험을 다졌고 참여정부에서 FTA국내대책본부장 등을 지냈다.

그는 되돌아보면 재학시절 ‘탈춤 동아리’에서의 추억을 잊지 못한다며 말을 꺼냈다. “탈춤 동아리 사람들은 유난히 사회의식이 강했거든. 거기서 동질감을 느껴서 가깝하게 됐지”라며 그 당시를 회상했다. 사회적 문제에 대한 비판을 탈춤을 통해 유쾌하게 몸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매료됐던 것 같았다. 그 홍영표 동문은 그 당시로 돌아가 다시 한 번 선배들과 흥겹게 탈춤을 춰보고 싶다는 의사가 내비쳤다.

현재 4.29 재보선에 당선된 홍영표 동문을 포함해 현역 국회의원 동국인은 11명이다. 그는 정치계에 동국인이 많이 있을 수 있는 이유를 오래된 동국의 역사로 뽑았다. “역사가 100년이 넘는 우리 대학은 독재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사명을 적극적으로 실천했다”며 “이러한 사명을 실천한

선배들을 통해 정치를 배웠고, 정계 진출이라는 꿈을 갖게 됐다”고 대답을 했다.

국회의원 임기동안은 공동체 내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갖고 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홍영표 동문. 이러한 일환으로 그는 GM 대우 회생과 복지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한다. “GM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은 지역 총생산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1만 1000여명의 노동자 및 관련 종사자만 20여만 명에 이른다”며 “GM대우가 무너지면 이곳의 노동자들도 어려움에 빠지게 GM 대우 회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후배들을 위한 조언을 부탁하자, 그는 반복적으로 ‘공동체 의식’을 강조했다. 공동체의 의식이 곧 동국 정신이라는 말을 거듭 사용하며, 주변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보다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안목을 지녀야한다”며 이러한 역량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쌓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민주화운동, 행정부 내 오직 그리고 정계까지 두루 섭렵한 홍영표 동문. 그의 국회의원으로서 또다른 도전을 기대해 본다.

이신혜 기자 leeshin@dongguk.edu

국민아이디어 공모전 윤슬기 군, 행안부 장관상



윤슬기 군(기계로봇 3)이 행정안전부 주최의 ‘생생 경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에 제출한 ‘CO2 저감 방안’이 채택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지난 달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으며 행정부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공모전은 경제위기 극복과 녹색 성장의 실현을 위해 실시됐으며, 선정된 아이디어는 추후 행정안전부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에 윤슬기군이 제출한 아이디어는 ‘CO2 저감 방안’으로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이용한 이산화탄소의 처리방안에 대한 것이다. 이산화탄소를 ‘보이는 쓰레기’처럼 처리함으로써 가정, 산업체와 사업체, 교통 등의 방면에서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전문 환경 관리 직종인 ‘에콘 시어지(Econcierge)’의 탄생으로 실업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한편, 윤슬기군이 제안한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은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뒤 촉매를 다시 사용할 수 있어 재생이 가능한 친환경 기술이다.

윤슬기군은 이번 공모전에 참여한 계기에 대해 “경험을 쌓고 싶어 지난 겨울방학부터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공모전에 참여하게 됐다”며 “이번 공모전까지 총 7개의 공모전에서 수상한 바 있다”고 밝혔다.

메리츠증권논문 공모전 김유리 양 논문 선정



메리츠증권 부동산금융연구소 ‘부동산금융 논문 공모전’에서 김유리(북한학 석사과정 수료, 북한학 연구소 연구원)양의 논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논문 공모전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금융시장의 현안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개최됐다. 논문 공모전에는 총 53명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참여했으며, 김유리 양의 논문이 6편의 우수논문으로 선정된 것이다.

김유리 양이 메리츠 증권에 제출한 논문은 ‘지역개발법인설립을 통한 북한 주요지역개발 전략’이다. 이 논문은 국내경기의 침체현상 속에서 북한의 라진선봉, 서해안지역 투자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것이다.

한편, 김유리 양의 논문은 POSRI 경영연구 6월호 논문집에 실릴 예정이다. POSRI 경영연구 논문집은 포스코경영연구소에서 1년에 2회 6월과 12월에 걸쳐 발간하는 논문집으로, 대부분 박사 이상의 전문가들이 글을 게재하는 학술지다.

“대중화되지 못한 진보정치? 외롭기보다 책임감 앞서”

국회의원 당선된(울산 북구) 조승수 동문(북한학 박사과정) 인터뷰

국회의 296석 중 1석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어떤이는 고작 한 석에 불과하다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다. 진보적 가치로 정책과 의제를 선점해 한 석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해 보이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치는 조승수 동문. 그가 말하는 정치에 대해 들어보자.

지난 4·29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조승수 동문은 울산북구에 출마, 한나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조승수 동문은 “제 당선은 노동자와 서민들의 의지의 결과요. 이번 당선은 사법살인에 대한 주민의 심판이라고 생각해요”라고 말한다. 사실 그의 당선 소감이 이렇게 의미심장한 데는 이유가 있다. 조승수 동문은 17대 총선에서 이미 울산북구에 선출된 이력이 있는 재선의원이다.

‘진보정치 1번지’라 불리는 울산 북구에서 그는 일찍이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었다. 하지만 사전 선거 운동 협의라는 억울한 누명이 씌어졌고, 대법원의 판결로 그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그는 “제가 정치인으로서 드물게 네이버 검색어 1위까지 해 봤어요”라고 말한다. “형평성에 어긋난 판결이라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재판부의 판결에 수용할 수밖에 없었어요”라며 아깝게 고배를 마셨던 경험을 토로한다. 조승수 동문은 억울했지만 그래도 좋은 경험이라 긍정적으로 여겼고, 결국 이번 당선까지 올 수 있었다.

독심 있고 뜻깊은 조승수 동문의 학창시절은 어

뻗을까. 재학 당시의 꿈이 국회의원이었는지도 궁금했다.

조승수 동문은 “원래부터 꿈이 국회의원은 아니었어요”라며 “제가 대학 다닐 당시의 시대 상황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했고, 제도권 정치에 몸을 담으면서는 원내에 진출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있었던 것이죠”라고 말한다.

조승수 동문의 대학 시절은 전두환 정권이 시작하던 시기와 맞물린다. 조승수 동문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다 결국 ‘독재 타도’를 외치며 시위대열에 동참하게 됐다.

그는 “무엇이든 공개적으로는 할 수 없었던 시기였죠. 학교에서는 Under Circle이라고 해서 몰래 학생들끼리 공부하고 그랬어요”라며 어두웠지만 그래도 즐거웠던 때를 추억했다.

“82년도 2학기 때 었던가, 제가 교내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에게 붙잡혀 이틀을 적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 때 총장 직권 휴학이라는 것을 통해 제 적당하니까 바로 영장이 나와 3일만에 입대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른바 약명났던 ‘북화사업’ 즉 강제징집이었다.

하지만 특심이고 원칙주의자였던 그는 이에 승복하지 않았고 홀로 시위를 벌였다.

늘 교내에 대기 중인 경찰에게 가능하면 안 잡히고 오래 버티기 위해 학내의 분수대로 뛰어들기도 했다.

당시 학내에 있던 분수대의 중앙 부분에는 사람 한 명이 거꾸로 잡길 정도였다. 그는 앞 뒤 가리지 않고 일단 뛰어 들었다. 물론 5분도 채 되지 않아 경찰에 연행됐다. 조 동문은 힘들었던 과거지만 시종 일관 웃음을 잃지 않으며 설명했다. 민주화운동의 경험이 국회의원당선에 초석이 됐던 소중한 기억임이 느껴지는 대목이었다.

그는 대중들에게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진보 정치를 하고 있다.

“진보 정치를 시작할 때는 쫓다 못해 어렸던 시기”라며 “제가 처음으로 하는 역할이었어요”라고 말한다. 보편적 가치에 순응하지 않고 과감한 선택에 망설이지 않는 조승수 동문다운 행동이었다.

그는 앞으로 아주 겸손하게 대답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한다.

“국회는 다양한 이해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모여 대립하는 곳”이라며 “매일 몸싸움으로만 비춰져 그렇지 보다 제대로 싸워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다만 내용으로서만 말이에요”라고 말한다.

대학시절도, 정치생활을 시작한 이후로도 모든 일이 순조롭지만은 않은 그다. 하지만 그는 언제든 중심 잡는 법을 잘 알고 있다. 조승수만의 가치를 대중에게 피력할, 앞으로 그의 당찬 정치 인생을 기대한다.

김철란 기자 lan@dongguk.edu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기간 : 2009. 4. 27 ~ 2009. 5. 10

100만등 달기 기금

변형하(학부생, 3만원)

건학 100주년 발전기금

박현주(서울/교수, 5만원) 양현식(불교/신도, 1만원) 이근성(불교/신도, 5000원) 이서현(일상/직원, 10만원) 허천택(동문, 10만원)

단위기금

김홍화(일반/기타, 100만원) 김은영(대학원/교육, 100만원) 김중철(동문, 5000원) 도연연(일반/기타, 5만원) 류덕순(일반/기타, 100만원) 박광열(동문, 1만원) 박승용(동문, 1만원) 손봉호(동문, 2만원) 윤해숙(동문, 1만원) 이계동(학부생, 100만원) 이기철(동문, 2만원) 이정윤(동문, 2만원) 이종연(동문, 2만원) 이현영(일반/기타, 100만원) 장작불소머리곰탕(기업/재단, 5만원) 최동열(일반/기타, 100만원) 현대자동차(성경점)(기업/재단, 5만원)

만원의 행복 기금

김태진(동문, 1만원) 김동욱(동문, 1만원) 김수현(동문, 2만원) 박래훈(일반/기타, 1만원) 박미진(동문, 1만원) 이상훈(동문, 1만원) 최봉림(동문, 1만원) 해관스님(스님, 5만원)

발전기금

구경도(일반/기타, 1만원) 국태영(일반/기타, 10만원) 김동국(동문, 2만원) 김일영(불교/신도, 4만원) 김예를(동문, 10만원) 김철수(일반/기타, 12만원) 심동민(동문, 1만원) 이호원(동문, 3만원) 임지수(동문, 10만원) 최명욱(일반/기타, 10만원)

임신들교병원 발전기금

(주)래브로(기업/재단, 200만원) (주)에어퍼스(기업/재단, 200만원) 김위동(불교/신도, 3만원) 김형준(동문, 1만원) 온상오(동문, 2만원) 윤상희(불교/신도, 6만원) 윤세원(불교/신도, 10만원) 이순욱(일반/기타, 10만원) 임신화(불교/신도, 5000원) 태원당약업사(기업/재단, 200만원) 홍순아(불교/신도, 1만원)

창학기금

(주)대성강일(기업/재단, 100만원) (주)세원상사(기업/재단, 100만원) (주)신원철강산업(기업/재단, 100만원) (주)하이파킹(기업/재단, 800만원) 강영진(동문, 2만원) 경찰행정학과동창회(동문, 1000만원) 고권녀(강기경)(동문, 200만원) 고철환(대학원/기타, 2만원) 고호성(불교/기타, 2만원) 광동영(동문, 4만원) 구함오(동문, 1만원) 권기식(동문, 3만원) 김계인(서울/교수, 5만원) 김규태(대학원/교육, 5만원) 김남영(동문, 5만원) 김상태(동문, 3만원) 김성열(동문, 1만원) 김여진(동문, 1만원) 김영미(불교/신도, 1만원) 김영호(동문, 2만원) 김용래(동문, 2만원) 김용호(동문, 5만원) 김홍희(동문, 1만원) 김태태(동문, 3만원) 김유태(동문, 5만원) 김인경(동문, 300만원) 김정관(동문, 3만원) 김정용(동문, 2만원) 김정은(동문, 2만원) 김주익(동문, 1만원) 김태동(불교/기타, 2만원) 김현선(동문, 1만원) 김홍신(동문, 5만원) 동경금융(주)(기업/재단, 15만원) 박광명(동문, 1만원) 박성필(동문, 1만원) 박지현(일반/기타, 5만원) 박태환(동문, 1만원) 박현근(동문, 2만원) 박해경(동문, 2만원) 방영오(불교/신도, 1만원) 배충남(동문, 5만원) 삼수모(불교/기타, 4만원) 생활협동조합(기업/재단, 734만원) 서동일(동문, 1만원) 설재윤(동문, 300만원) 송관수(동문, 20만원) 송장희(동문, 2만원) 송효영(동문, 5만원) 신인호(동문, 2만원) 안정호(일반/기타, 1만원) 엄중호(동문, 3만원) 예

스원(기업/재단, 400만원) 여익구(동문, 20만원) 오윤관(동문, 3만원) 유상복(동문, 4만원) 윤옥승(불교/신도, 2만원) 윤주호(대학원/사회과학, 5만원) 윤준호(동문, 2만원) 이경(동문, 3만원) 이광우(동문, 2만원) 이낙영(동문, 1만원) 이상문(동문, 4만원) 이상보(동문, 5만원) 이상익(일반/기타, 3만원) 이승규(동문, 1만원) 이시진(동문, 2만5000원) 이원규(동문, 2만원) 이은심(일반/기타, 10만원) 이재군(불교/신도, 1만원) 이종익(일반/기타, 10만원) 이지희(동문, 3만원) 이혜선(동문, 2만원) 이해주(일반/기타, 1만원) 인성스님(스님, 3만원) 임식(서울/교수, 100만원) 자도스님(동문, 100만원) 장보영(동문, 5000원) 장애순(서울/교수, 10만원) 장중수(동문, 5만원) 장진(동문, 5만원) 전병영(동문, 5만원) 전용수(일반/기타, 10만원) 전용택(일반/기타, 1만원) 전포성(일반/기타, 2만원) 전형준(동문, 3만원) 정승석(서울/교수, 100만원) 정영성(일반/기타, 3만원) 정우경(동문, 1만원) 정환성(동문, 2만원) 조당호(동문, 3만원) 조인목(동문, 5만원) 조진권(동문, 1만원) 조태수(동문, 1만원) 지승림(불교/기타, 4만원) 채윤미(일반/기타, 1만원) 최문정(일반/기타, 1만원) 최보영(동문, 2만원) 최아영(동문, 1만원) 최우혁(일반/기타, 1만원) 최창영(동문, 3만원) 한인만(동문, 1만원) 함한진(동문, 3만원) 허진석(동문, 5만원) 황창사(불교/사찰, 1400만원) 황필기(일반/기타, 100만원)

특정목적기금

(주)대신산업(기업/재단, 1만원) 김중구(동문, 1만원) 김덕표(학부생, 1만원) 김동석(학부생, 1만원) 김정연(스님, 1만원) 김현진(동문, 4만원) 김해정(동문, 3만원) 박계훈(학부생, 1만원) 박광영(동문, 1만원) 박문기(서울/교수, 100만원) 백성(기업/재단, 10만원) 보글약프.(주)(기업/재단, 5만원) 산정(기업/재단, 10만원) 오소민(불교/신도, 5만원) 오준철(불교/신도, 5만원) 이수아(일반/기타, 1만원) 이승진(동문, 2만5000원) 이윤준(동문, 3만원) 이원학(일반/기타, 2만원) 이현태(동문, 1만원) 정각원(불교/사찰, 277만8500원) 정경민(동문, 2만원) 정승재(동문, 10만원) 정은재(동문, 10만원) 정재우(동문, 10만원)

dongguk UNIVERSITY

만원의 행복

10000

만원이 滿員을 행복하게 합니다

만원으로 시작하는 동국대학교의 행복한 동행
동국대학교는 여러분의 실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원은 이렇게 쓰여집니다

장학사업 / 캠퍼스 인프라개선 / 연구지원 / 우수교원초빙 / 최첨단 의료환경개선 / 글로벌인재육성사업 등 학교발전의 발전을 위하여 소중한게 사용되어 집니다

잠깐 !!

기부는 큰 돈이 들어가는 어려운 일이므로 내리는 성의가 중요하고, 동국대학교는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인연의 끈을 이어-가는 작은 실천 한 통화로 사후할 수 있습니다. 동국대학교는 당신과 항상 연대하겠습니다.

참견반

· 자체 예산 / 전화 / 한통화로 번거로운 절차없이 장미편지를 발송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 02-2260-3300, 3394-5, 8892)

· 동국대학교 발전기금 홈페이지(자신당첨도 결제 및 자동이체 가능) http://love.dongguk.edu

기획연재- 미래사회와 대학 ② 미래 대학의 학문구조

미래대학, 학문의 간 장벽 무너지고 융합으로 통한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성의 학문 통섭형 인재 양성...이제 학문 융합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

글 쓰는 순서

1. 미래사회의 모습
2. 미래 대학의 학문구조
3. 미래사회와 대학 인프라
4. 미래의 우리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



컴퓨터와 정보, 인간이 융합된 학문 인지과학

대학은 항상 변한다. 3학(三學: 문법, 논리, 수사학)과 4과(四科: 기하, 대수, 우주, 음악)를 가르치면서부터 시작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학은 가르치는 내용과 방법을 달리하며 변해왔다. 이러한 변화가 미래에도 계속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인지가 더 발달하고 대학에 대한 사회의 수요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학문은 융합의

길을 재촉했다. 그리스 때 '시 짓기 기술'로부터 시작했던 학문연구가 쪼개고 또 쪼개지며 분화하다가 이제 다시 옛날로 회귀하며 학문간의 융합을 당연시 하게 되었다. 이를 복잡계 과학시대의 도래가 추동했다. 노벨상을 수상한 프리고진지 서술에 왔을 때 말하기를 "이제 우리 그만 쪼개자"고 했다.

이젠 융합의 시각으로 학문을 보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지게 된다. 대학의 학문체계는 그래서 바뀌어야 마땅하다. 그 중심에 인지과학이 있고, 인미(認美)과학이 있다.

이해의 틀은 그대로

인간이 사물과 현상을 바라보는 눈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 어떻게 보고 이해하고 설명하고 전달하느냐의 인식론(Epistemology)인데, 과거로부터 이해의 틀에는 (1) 기억의 축, (2) 이성의 축, (3) 상상의 축이 유지돼 왔다. 기억의 축의 대표적 학문이 역사이고, 이성의 축은 철학이고, 상상의 축은 시학(詩學)이다. 이들 중 상상의 축이 더 부각되게 된 것은 창조 사회를 맞이 때문이다. 생산, 소비, 정보 등 여러 사회를 지나 21세기에 창조사회를 경험하면서 필수적이 된 것이 상상이다. 경험한 것만 가지고 지식을 만들어 내다가는 더 큰 부가가치를 생산해내지 못한다. 아인슈타인도 지식보다 상상이 더 큰 힘을 가진다고 했다. 그렇다고 다른 학문들, 이를 테면 역사와 철학 등 인문학의 중요성이 폄하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간의 관계를 한 차원 높이면 우리가 모르던 세계가 전개된다.

패러다임 전환...대학 변화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동기는 패러다임이 변하기 때문이다. 19세기 과학주의와 도구적 합리주의에서 생각했던 그대로 세상은 커다란 기계이고 조직도 그러하며 인간은 그 가운데 한가 부품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시대와 인지가 깨던 지금의 세상은 너무나 다르다. 기계 같은 세상이 이젠 숨을 쉬게 되었다. 더 다양한 사고가 가능해졌고, 또 틀리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게 되었다. 조직을 지금은 콜라주(collage)라고 말한다. 다양하고 경계도 모호하고 고칠 수 있다는 추상미술의 기법에 빗댄 것이다.

패러다임은 분명히 틀어졌던 것을 하나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서양의 이분법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체와 부분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그게 아니고 부분이 곧 전체이고 부분 속에 더 큰 전체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차연(差延)'도 더 볼 줄 알아야 한다. 합리성이라는 것도 제한적 합리성 또는 휴리스틱스(heuristics)나 편견이 더 옳다고 믿기 시작했다. 행동경제학 쪽에서 주장하는 것인데, 저런엔 인간이 지극히 합리적 선택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성이 조람말이라면 감성은 코끼리와 같아서 인간의 사고는 좁은 소견이나 감정이 더 지배할 때가 많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학문의 전당인 대학이 바뀔 수밖에 없는 사정이 분명해진 것이다.

융합의 추이는 거역 못해

대학에서 학문끼리 모여 협동하고 공동으로 운영하고 이젠 자유전공 학부제까지 등장했다. 대학에서 전공이 하나 이상인 것은 벌써부터 시작했다. 도대체 한 가지만 알고 문제를 모두 다 풀 수 있다는 것은 연목구어다. 마치 플라톤의 동굴에 갇혀 벽화에 비친 희미한 자신의 모습이 전부인 양 알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제는 물리학과 화학 구조식을 외우고 기계학도가 박테리아를 알지 못하면 안 된다고 한다. 안과 의사와 의공학도가 만나 인공안구를 만들어 낸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디자인 작업을 겸업한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 같은 인간이 제 2 계몽 시대, 네오 르네상스 시대를 맞으며 무수히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인간은 원래 융합의 실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 자체로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 그리고 학문과 학문끼리 만나야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믿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인문과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같은 학문 구분은 정말로 시대착오적이 됐다. 50년대부터 이과와 문과로 나누어 문과생에게는 대학 입학 때 수학만 해도 된다는 교육정책이 지금껏 이어지고 있으니 지식인을 반쪽자리로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 사람은 누구나 형이상학부터 시작해서 철학과 수학을 두루 섭렵해야 자연학과 인성학에 익숙해져 인간과 사회를 제대로 이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대 중반부터 대학들은 '문과와 대학'이라는 편제를 버리고 인문, 자연, 사회로 나뉘었다. 정답이 있던 대학의 학문체계를 허물었던 것이다. 미국은 하버드 같은 경우에 칼레지가 하나이다. 버지니아 대학에도 사회대학에 인문은 물론 아트까지 있다. 대학에 여러 학문이 칸을 막지 말고 함께 섞여 쉬쉬

고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21세기 학문체계

앞으로 대학의 학문체계가 바뀌어야 할 것은 당연하다. 분석과학과 경험과학의 분류나 경험과학 속에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의 구분이 있는 것은 존중하지만, 문제를 풀기 위해 여러 학문이 같이 달라 붙어야 하기 때문이다. 70년대에 동경에서 일어났던 일은 좁은 소견이나 감정이 더 우주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과학기술이 과거와 다르게 폭발적으로 발달하면서 분과학문에 머물던 것이 이제는 융합학문으로 가고 미래 각광을 받는 학문이 달리 조명되기 시작했다. 우주과학과 생명과학, 그리고 뇌 과학 등이 그것인데, 이는 레이먼드 커즈와일이 '특이 점이 온다'라는 책에서 과학의 변화를 예견해 더욱 분명해졌다. 이른바 물리학과 화학의 시대에서 시작한 과학이 생물학의 시대를 거쳐, 기술학과 더 밀접해지고 인간의 두뇌가 창발한 후 우주가 깨어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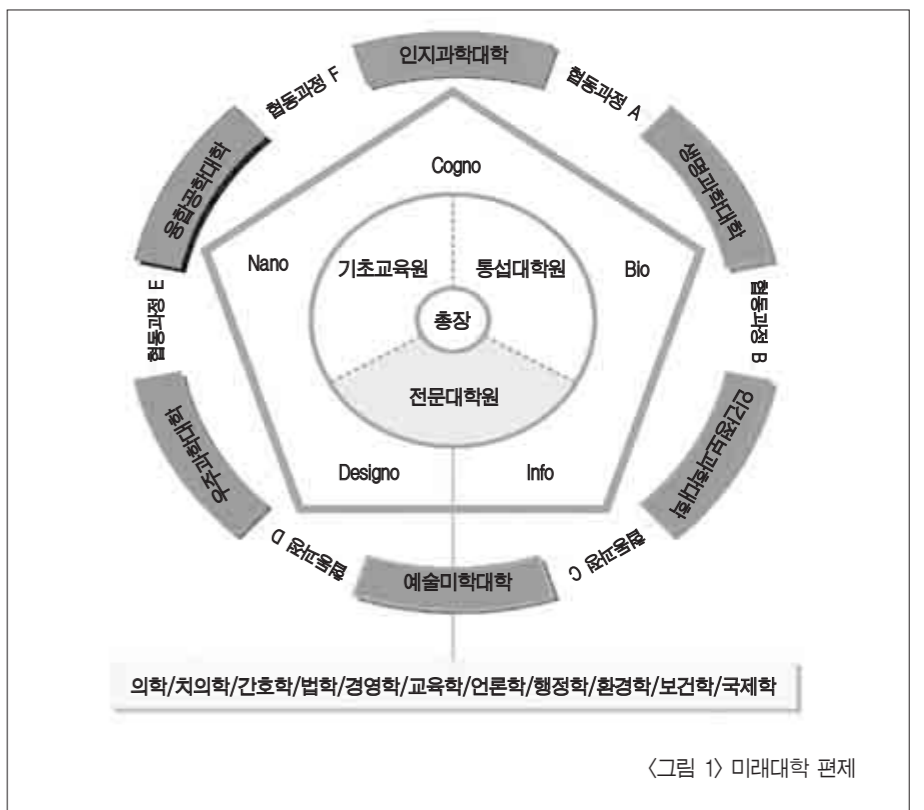
21세기 학문체계를 보면 형이상학이 뿌리인 채, 줄기에는 자연학과 인성학(Ethology)이 자리잡고 기술과 사회의 관계가 보다 더 집약되면서, 왼쪽에는 기존의 분과학문이 나열되고 오른쪽에는 새롭게 각광받는 학문들, 이를테면 나노과학, 생명과학, 우주과학 등이 나열된다. 이들이 만나는 꼭대기 접점에 융합과 통섭과학이 자리를 잡는다. '국가의 미래'나 '우리는 미래에 무슨 공부를 할 것인가'와 같은 책에 자세히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

미래대학의 모습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미래대학의 모습과 내용을 정립할 때가 되었다. 이순종 교수가 미래대학을 그린 것을 보면('우리는 미래에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참조)교수, 연구, 실험 등이 기업과 커뮤니티와 더 연관되는 것을 상정한다. 거기에 더 주문을 한다면, 미래대학은 우주도시에 건립될 것이고 바다에 떠 있는 섬(부양도시)에도 캠퍼스가 있을 것이다.

캠퍼스의 위치는 그러한데 필자가 2006년에 한 번 그려 본 미래대학의 학문 편제는 이러하다(우 (그림 1) 참조). 대학에 총장은 있어야 하고 기초교육의 장도 있어야 하기에 이들이 중심이 되고 6개의 대학이 병렬되는 형태를 구상했다.

- (1) 인지과학대학, (2) 생명과학대학, (3)



〈그림 1〉 미래대학 편제

인간정보생활과학대학, (4) 우주과학대학, (5) 융합공학대학, (6) 예술미학대학 등이 그것이다. 그 밖의 모든 과학은 응용과학으로 치부해 전문대학원의 수준으로 분류했다. 여기서 한 가지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대학의 학문 원소가 코그노(cogno), 바이오(bio), 인포(info), 나노(nano), 그리고 디지그노(designo)라는 것이다. 생소한 단어인 디지그노는 앞으로 미래학문이 관계학으로 발전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학문을 묶어 더 아름답게 꾸민다는 뜻을 함축한다.

앞으로 대학이 어떻게 될 것이냐, 교수 방법은 또 어떻게 바뀔 것이냐 등에 관한 이야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엘리트 대학은 생존

대학이 살아 남을까? 유비쿼터스 시대가 도래하니 캠퍼스가 있는 대학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물리적 장소의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흐름의 공간이 더 중요하다고 하니까 고정된 공간의 중요성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하는 말은 보통 대학들은 문을 닫을 것이라고 예견하는 사람이 있다. 교수 방법으로 보편화되어 가는 인터넷 강의며 화상 강의가 주류를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굳이 캠퍼스에 가지 않아도 강의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 어느 대학을 보면 중앙도서관 자료실에 이미 여러 강

의 동영상이나 저장돼 학생들이 언제라도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미국에서도 유수의 대학 강의가 공개되기 시작했다. 등락한 학생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얼마든지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되었으니 상아탑이라는 폐쇄된 대학의 이미지가 크게 변하고 있는 것만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엘리트 대학은 남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유가 재미있다. 대학이라는 곳이 원래 지식을 습득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대학의 가치는 지식보다는 캠퍼스에서 만난 인간관계가 평생 영향을 미치니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좀 실망스러운 이야기이긴 해도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한 입질일 뿐 앞으로 삶을 지배하는 것은 얼마나 창조적 상상력을 키우느냐 이고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 대학에서 융합학문을 습득할 때 그 길이 열리기 때문에 캠퍼스에서 학문을 연마하는 대학의 모습을 결코 쉽게 포편하면 안 될 것이다. 어떤 형태이든 미래대학을 준비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 광 응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성적우수장학금, 모범장학금 분리 시행 안내

1. 변경취지 : 기존의 성적우수장학금을 성적우수장학금과 모범장학금으로 분리하여 시행 함으로써 단과대학별 특성에 맞는 장학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2. 성적우수 장학금
가. 신청방법 : 성적을 100% 반영 하여 석차순에 의해 선발을 하므로 별도의 장학금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선발인원, 장학금액 : 단과대학별로 기준을 정하여 시행 함다. 자격
1)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4학년 12학점), 평균평점 3.0이상인 자
2) 2009-2학기 복학생은 제외

3. 모범 장학금
가. 대상 : 대학별 특성에 맞는 장학제도를 신설하여 해당 대상자를 선발 함
나. 선발인원, 평가기준, 장학금액 : 단과대학별로 기준을 정하여 시행 함
다. 신청방법 : 대학별 안내사항 참조
라. 신청기간 : 2009.5.15(금)-5.29(금)

▶ 성적우수 장학금 변경사항

구분	현재		변경	
	성적우수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모범장학금	모범장학금
인원	재학인원의 12%	대학별 기준 정함	대학별 기준 정함	대학별 기준 정함
선발방법	학업성적, 교수평가, 사회봉사, 기타평가	석차순 선발	대학별 특성에 따른 선발기준 정함	대학별 특성에 따른 선발기준 정함
금액	수업료의 30%	대학별 기준 정함	대학별 기준 정함	대학별 기준 정함

4. 대학별 장학금 신설 현황

대학	성적우수 장학금	모범 장학금	기타
불교대학	/	재학인원 12% (성적90, 교수평가30, 사회봉사10)	수업료 30%
문과대학	/	/	추후결정
이과대학	재학인원 9%	재학인원 3% (가정형편40, 교수평가30, 사회봉사10, 형사정형외20)	수업료 30%
법과대학	재학인원 2%	재학인원 10% (성적(영어영문포함) 50, 사회봉사10, 교수평가6)	수업료 30%
사회과학대학	재학인원 12%	/	수업료 30%
바이오시스템대학	재학인원 12%	/	수업료 30%
사범대학	추후결정	추후결정 (성적50, 사회봉사10, 교수평가40)	응용영어영학, 사적동맹 장학금 신설
경영대학	/	/	추후결정
공과대학	/	/	추후결정
예술대학	미술 전공학부 12% 문예창작학과 8%	문예창작학과 4% (교수평가70, 사회봉사30)	수업료 30%
영상미디어대학	/	/	추후결정

* 추후결정 예정인 대학은 해당대학 학사운영실에 확인 요망

5. 시행시기 : 2009학년도 2학기부터 (2009-1학기 성적을 반영하여 2009-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서 감면 지급 됨)

6. 기타 :
가. 성적우수 장학금과 모범 장학금은 중복지급이 불가능 함. 이 중 수혜 대상인 경우 유리한 장학금을 선택할 수 있음.
나. 미등록 휴학생의 장학금(교내 장학)은 복학 시 이월하여 지급이 가능 함
다. 전과신청자의 장학금은 전과를 희망하는 단과대학의 선발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영어강좌별 우수 장학금 신설 안내

2009-2학기 영어강좌별 우수 장학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을 알려드립니다.

1. 시행취지 : 영어강좌 수강을 독려하고 장학금지급을 확대하여 학업의욕을 고취하고자 함

2. 장 액 액 : 영어강좌 우수 장학금

3. 장 액 액 :

- 가. 강좌 당 수석 : ₩300,000
- 나. 강좌 당 우수 : ₩150,000

4. 대 상 : 영어강좌별 수강인원의 10% 이내

< 재외대상 >

- 가. 수강신청 인원이 10명 미만 강좌
- 나. 타대학(분교포함) 소속 대학생
- 다. 8학기 이상인 자
- 라. English Conversation I, English Conversation II,
- 마. 영어트랙 강좌 등

5. 자격기준

- 가. 1인당 3강좌까지 지급 가능 함
- 나. 타 장학금 수혜여부와 관계없이 장학금을 지급 함
- 다. 등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 라. 동. 학제 계절학기 성적입력시는 장학금을 선발하지 않음
- 6. 선발방법 : 성적입력 시 대상자 선발 함
- 7. 지급방법 : 등록금에서 감면처리되어 지급 함

강좌별 수석 장학금 시행 안내

2009-2학기 강좌별 수석 장학금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1. 장 액 액 : 강좌별 수석 장학금

2. 장 액 액 : 1인당 ₩150,000

3. 수혜대상 : 대학이 강좌별(전공, 교양) 우수 학생 1명을 선발하여 지급 함.

(단, 수강신청 인원이 10명 미만의 강좌, PASS과목, 교육실습, 현장실습, 타대학(분교포함) 소속 대학생, 8학기 이상인 자는 제외 함)

4. 자격기준

- 가. 강좌별(전공, 교양) 우수자 1명
- 나. 1인당 3강좌까지 지급 가능 함(단 4학년(8학기) 재학생은 제외)
- 다. 타 장학금 수혜여부와 관계없이 장학금을 지급 함
- 라. 동. 학제 계절학기 성적입력시는 장학금을 선발하지 않음
- 마. 등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5. 선발방법 : 성적입력 시 대상자 선발 함

6. 지급방법 : 등록금에서 감면처리되어 지급 함

중세국어와 1950년대 전후문화 속으로 풍덩

우리대학 출판부 '석보상절', '아프레겔 사상계를 읽다' 펴내

우리대학 출판부가 중세 국어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석보상절'에 관한 주해와 1950년대에 문화상을 이해할 수 있는 '아프레겔 사상계를 읽다'란 두 책을 잇달아 발간해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대학 국어국문학과 김영배 명예교수가 개정 출판한 '석보상절 제 23·24 연구'는 부처의 가족과 그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이를 한글로 번역해낸 것이다. 부처에 관한 중국의 여러 경전을 합쳐 우리나라 식으로 엮은 '증수석가보'를 당시 세종대왕이 장안한 훈민정음(訓民正音)으로 다시 번역한 것이다.

이 책을 출판한 사람은 나중에 세조로 등극하는 수양대군인데 그는 아버지 세종의 명으로 '증수석가보'를 김수운과 신미스님, 승무원 대신들의 도움을 얻어 훈민정음으로 번역하게 된다. 이는 세종의 부인이자 세조의 어머니인 소헌왕후가 병으로 운명하자, 그녀의 명복을 위하여 자한 것이다.

당시 15세기 대부분의 중국 불경들은 훈민정음이 나오기 전에 내용을 옮긴 것이라 모두 한문으로만 번역되어 있었다. 하지만 '석보상절'은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안한 직후에 번역됐기 때문에 15세기 국어의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담고 있다. 게다가 번역 투의 문제들을 과감히 버리고 대화체가 많아 중세 국어학 연구에 좋은 연구 자료가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석보상절은 24권의 책 중 10권만이 남아 있는데 그 중 23편과 24편(보물 제523-2호)은 우리대학 중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두 권은 전체 석보상절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부처가 열반에 들 때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 과정을 김영배 명예교수가 주해한 것이다.

김영배 명예교수는 1972년에 '석보상절 제23·24 연구'를 출판했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개정판을 내지 못했다. 그러던 중 '일석국어학상'을 수상한 계기로 기존 자신의 책에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개정판을 출간하게 됐다.

이 책의 부록 부분엔 중앙 도서관의 협조를 얻어 석보상절 원본을 촬영한 사진이 실려 있다. 책을 읽는 독자들은 이를 통해 중세 국어의 상상한 매력 속으로 흠뻑 빠질 수 있을 것이다.

'아프레겔 사상계를 읽다'는 우리나라의 1950년대 전후(戰後) 당시의 문화와 사회상에 대해 교양교육원 권보드레 교수 외 10명의 공동 저자가 각기 다른 시선에서 글을 써내려간 문화학술서다. 아프레겔(Apres girl) 중 아프레는 전후(戰後)를 뜻하는 프랑스어로 이 책에선 전쟁 이후의 우리나라 여성들을 지칭하고 있다. 아프레겔들은 주로 '성적으로 분방하고 향락, 사치, 퇴폐에 빠진 여성'들을 통칭하는 말이였다. 하지만 이 책에서 이들은 '자유를 갈망하는 여자'들로 다시 태



석보상절 제 23·24 연구
주해 : 김영배
펴낸곳 : 동국대학교 출판부



아프레겔 사상계를 읽다
지은이 : 권보드레 외 10명
펴낸곳 : 동국대학교 출판부

어난다.

1950년대 당시엔 소련과 북한, 미국과 남한 사이의 6·25 전쟁이 한반도를 휘감고 지나간 이후였다. 당시 대한민국은 미국의 개방적 문화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던 시기였고 정치적 폐쇄성, 경제적 낙후성, 문화적 역동성들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던 시점이었다. 이에 책에선 제1부- '지식인과 미국의 욕망', 제2부- '대중문화와 젠더의 정치학'으로 나눠 저자들 저마다의 특색 및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보고 있다. 저자들은 영화 <자유 부인>, <지옥화>와 극단 <신협> 같은 대중 문화적 요소들을 창(窓)들로 삼아 당시 시민들의 일상적인 실제 모습들을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다. 이 소재들은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아내의 유혹', '꽃보다 남자' 같이 당시 사람들의 일상을 살피기에 가깝게 투영하고 있다. 여기에 이야기의 초점들은 '미국문화'와 '여성'에 맞춰진 채 그렇게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이야기들이 일목 요연하고 유쾌하게 이어진다.

출판부는 교양서적과 학술서적들을 체계적으로 출간해 대학의 학술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출판부의 이번 시간 발간은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영호 기자
blueeagle@dongguk.edu

연재 학회 탐방 <법과대편> 민주법학회

법이 민중에 선 그 날까지



▲ 토론에 빠져 있는 민주법학회 학생들

학생들의 개인 시간들이 중요해지고 각각 나름대로의 경력을 쌓아내는 경쟁이 치열한 현재로서는 상상이 잘 안되지만 지금과는 달리 독재 정권에 맞서 대학생들이 소리 높여 민주주의 쟁취를 외치던 시절이 있었다.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있을까

법학 도서관 옆 통로에 있는 민주법학

회실은 늦은 밤에도 학회원들의 열띤 토론으로 북적인다. 그들이 앉아있는 책상 옆쪽 벽에는 토론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같은 철학적인 물음에 대한 토론 일정을 적어 놓은 포스터들이 보였다. 민주법학회는 1990년대 초 학생들이 학원 자주화 운동 과정에서 학회 활성화화를 위해 결성된 소모임으로 출발했다. 1990년 처음 창설되어 95년 이후 매년마다 학회지를 출판하며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민주법학회의 모토는 '법이 민중에 선 그 날까지'이다. 말 그대로 소수 특권층보다 민중을 위한 법을 만들자는 메시지

<편집자주>

흔히들 대학 생활은 공부, 연애, 인간관계 셋 중의 한 가지만 잘해도 성공했다고들 한다. 이중 이번 연재에선 공부 쪽을 집중 조명해보려 한다. 학회에 참여해 학문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순수한 열정과 패기를 지니고 있는 학생들, 그들의 대학 생활은 어떨까? 지금 만나보자.

다. 실제로 사법 고시에 합격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에서 활동하는 선배들도 여럿 있다.

민주법학회 손기호 회장은 민주법학회의 장점으로 이상에 대한 끝없는 열정과 끈끈한 선배들 간의 정을 들었다. 실제로 민주법학회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선배가 찾아와 후배들의 스터디를 도와준다. 또 학교에서 사법 고시를 준비하며 고시반 생활을 하는 선배들도 틈이 나면 학회실에 찾아와 후배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법과 사회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벌이기도 한다. 선 후배간의 끈끈한 정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민주법학회가 배출한 사법고시 합격자도 20년간 대략 11명이 넘는다. 학회지엔 고학번 선배들의 결혼 소식도 실리는 등 OB들과의 관계도 돈독하다.

민주법학회의 가장 큰 행사는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여는 학술회인데 학생들은 이 학술회에 많은 정성과 노력을 들인

다. 학회원들은 방학 때도 학회에 나와 진지하게 학술회를 준비한다. 이를 위한 주제 설정, 발제, 토론 등은 모두 학생들이 준비한다.

올해 학회에선 우리나라 의료 보험법을 소재로 삼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보험법의 개정안을 나름대로 제시해 보고 거기에 관해 토론을 하는 것이다. 학회원들은 나름대로 자료 조사를 하고 근거를 세워 토론지를 만들고 대안을 외워 상대방의 논리를 논박한다. 이렇게 빠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민주법학회의 낙우들은 0에 가깝다. 그 이유로 손기호 회장은 "모두들 비판적인 사회의식을 가지고 끈끈한 정을 토대로 단결을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처럼 그들의 이상을 향한 열정은 오늘날도 현재 진행형이다. 내년엔 발간 될 민주법학회 학회지가 벌써부터 기다려지는 건 왜 일까.

이영호 기자
blueeagle@dongguk.edu

<6> 루쉰

교양교육원 권보드레 교수의 시력을 극복하는 책임기



생존과 충족과 발전 한마디도 덧붙이고 싶지 않은 책이었다. 그저 구절구절을 읽어줌으로써 전하고 싶은 책이. 중국의 대표적인 작가 루쉰은,



루쉰
지은이 : 다케우치 요시미
서광덕 역
펴낸곳 : 문학과 지성사

그 생애 자체로, 내게는 그런 책이다. 루쉰은 읽을 때마다 나를 심연에 처박는다. (실제지만 '아Q정전'의 몇 편은 빼고, 라고 덧붙이고 싶다. 나는 아직도 '아Q정전'이 왜 그리 위대한 작품이라는 건지 모르겠다.) 수업시간에도 종종 루쉰을 써먹지만, 몇 번 보면 진력나는 책들과 달리, 루쉰은 읽고 또 읽어도 고갈되지 않는다. 어쩌면 다케우치 요시미도 비슷한 생각이었을까.

"나는 스스로 끝없는 비에 속에 빠져 있었지만, 조금도 울분을 터뜨리지는 않았다... 다만 나 자신의 적막만은 떨쳐내 버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것은 나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이다" 다케우치 요시미는 루쉰을 '적막'의 경험에서 읽어내기 시작한다. 신해혁명 후의 좌절, 그 와중에서 루쉰은 "홀로 벌판에 버려진 듯"한 적막을 느끼고 거기서 중국을 감각한다. 목이 터져라 외쳐대고 길을 가로막고 누구는 제 생명까지 던지지만, 사람들은 무심한 얼굴을 하고 허깨비처럼 오갈 따름이다. 처형당한 시신이 내걸렸을 때도 수군수군 번지는 소리란 것 흘린 피가 폐병에 좋다는 등 하는 아비한 비평뿐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나다." 나는 정의롭고 순결하지만 그들은 비열하고 불결하다. 는 생각은 있을 수 없다. 루쉰은 결코 선구자가 아니었다고 다케우치 요시미는 몇 번이나 지적한다.

그는 결코 선구자가 아니었다 진보주의자도 아니었다 선동도 하지 않았다 해방에 이르는 길은 그에겐 열려 있지 않았다 어떤 길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진보주의자도 아니었다. "그는 한반도 어떤 방향을 가리키지 않았다. 인간은 해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해방될 것이라고 여겼지만 '해방에 이르는 길은 그에겐 열려 있지 않았다'" 세상에서 떠드는 어떤 해방의 길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친구가 있고 제자가 있고 가족이 있었지만 그는 평생토록 혼자 견뎠다. 온화한 성격이었다고 전해지지만 그의 글은 지독스레 신랄하고 전투적이다. 그는 단 한순간도 눈감지 않고 단 한 눈금도 에너리를 두지 않았다. 그는 어디를 향해 걷는 대신 다만 살아갈 따름이었으나, 한 걸음 한 걸음은 확고했고 절대 누구 곁에 서기 위해 제 길을 휘지 않았다.

다케우치 요시미의 '루쉰'은 제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출판되었다. 루쉰 연구서라고 알려져 있지만 '루쉰의 소설은 재미없다'는 단언을 앞세운 기묘한 연구서다. 작자는 징집당해 전선으로 떠나면서 일종의 '유서'로서 이 책의 원고를 남겼다고 한다.

'루쉰'은 루쉰의 생애를 고루 다루지도 않고 루쉰의 작품을 모두 검토하지도 않는다. 뿐인가, "나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였다"라는 말이 곳곳에 튀어나와 독자의 기대를 배반한다. 이 책은 루쉰을 정리한 책이기보다 루쉰과 겨우겨우 만나는 책이다. 회망에도 절망에도 취하지 않고, 미래를 보여주는 대신 피 흘리는 현재를 보여줌으로써 다음 걸음을 이끄는, 그런 세계의 무게가 이 책에는 있다.

그래도 젊은이들에게 목표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루쉰은 "첫째는 생존, 둘째는 충족, 셋째는 발전"이라고 답했다. "이 세 가지를 가로막는 자가 있다면 상대가 누구든 우리는 그에 반항하고 그를 박멸해야 한다"고.

2009년도 공과대학 교과목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개회 목적
가. 교과목 포트폴리오에 대한 내실화
나. 교과목 포트폴리오의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출품 대상 및 자격
가. 대상: 공학인증 교과목 강의 교원(비전임, 시간강사 포함)
나. 자격: 2007년 1.2학기 및 2008년 1.2학기 교과목 포트폴리오 제출 교원

출품 영역 교과목
가. 전공: 전공이론, 전공설계
나. MSC: 수학, 물리학, 화학, 전산학
다. 전문교양: 기본소양

심사 방법
가. 전공: 각 학과에서 1차 심사 후 2인 추천
→ 혁신센터의 교과목 포트폴리오 심사위원회에서 2차 심사.
나. MSC, 전문교양: 혁신센터의 교과목 포트폴리오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심사 시기
: 교과목 포트폴리오 구성 및 내용의 충실도를 위주로 평가함.

대상

구분	영역	인원	상금	
전공(이론, 설계)	9개 학과	9명	270만원	
	MSC	수학	1명	30만원
		물리학	1명	30만원
		화학	1명	30만원
		전산학	1명	30만원
전문교양	기본소양	1명	30만원	
계		14명	420만원	

제출 일정
가. 참가신청서 제출 마감: 2009. 5. 12(화) 17:00까지(학과 사무실에 제출)
나. 학과 추천서 및 작품 제출 마감: 2009. 5. 15(금) 17:00 까지(센터에 제출)
다. 작품 2차 심사(센터): 2009. 5. 18(월)~5.22(금)
라. 시상 및 전시: 2009. 6월 초(예정)
(교과목 포트폴리오 설명회와 병행하여 진행하며, 우수작품은 외부에서 개최되는 경진대회에도 출품할 예정입니다.)
※ 제출양식은 공학교육혁신센터 홈페이지(http://iceed.dongguk.edu)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가. 참가신청서 양식 1부.
나. 심사대상자 및 추천서 양식 1부.
다. 심사위원 명단 양식 1부.
라. 교과목 포트폴리오(바인더) 1부.
※ 교과목 포트폴리오를 학과 또는 센터에 기 제출한 경우는 참가신청서만 제출함.

공학교육혁신센터

에코포럼 제 27회 정례세미나

전 세계적으로 수변 및 수생태계를 복원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는 정책방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이수과 치수를 중심으로 한 하천관리로 수변 경관자원을 훼손하였고 이에 대한 하천 및 수변구역 보호를 위한 공간관리정책 등의 개발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2006년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생태적 가치 보호를 중요시 여기고 있기에 본 포럼의 주제가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5월 에코포럼 정례세미나는 한강을 대상으로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토지이용제한 현황 및 향후 발전에 관한 관련분야 전문가인 발제자와 토론자를 모시고 깊이 있는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009년 5월 21일 (목요일) 오후 3시

■ 장소 : 동국대학교 윤길산 연습실 관리사무소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리)

■ 주제 : 한강 수변구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 토지이용제한 현황 및 향후 발전방향

■ 발표 : 박창성 박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자세한 사항은 생태환경연구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02)2260-8648

생태환경연구센터

일본불교사연구소 개원

겨울이 없다면 우리의 몸은 온전히 살펴보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것 입니다. 우리 불교의 오늘과 내일을 비추보는 데 일본불교는 더없이 좋은 거울이 됩니다. 이렇게 믿는 길벗들이 모여서, '일본불교사 연구소'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지금 희망 없는 곳에서 희망을 만들어 가는 젊은 불교도들에게 작으나마 힘이 되기를 우리는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참여를 간절히 바라는 까닭입니다.

연제 : 2009년 5월 23일(토) 오후 2시~6시
장소 : 동국대 제3세미나실(90주년 기념 문화관 2층,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 하차, 학교를 향하여 오르다가 왼쪽으로 두 번째 만나는 건물)
주최 : 일본불교사 연구소(연락처: 02-2260-3123, 010-4043-3395 김호성)
후원 : 동국대 출판부, 도서출판 한·결음터(02-2264-4708)

요원은 사양합니다.

제1부 개원식, 시의 : 한상길(동국대 불문연 연구교수)

제2부 개원 기념 학술세미나, 시의 : 홍사성('불교평론' 편집위원)
주제 : '겨울의 유산' (다치하라 마사아키를 읽는다)

발표 및 논쟁
일본문화 속의 다치하라 마사아키
발표 : 김경희(동국대 일본과 강사), 논평 : 손지연(단국대 일본학연구소 연구교수)
다치하라의 '혼혈' 의식과 '전후' 일본사회
발표 : 박광현(동국대 국문과 교수), 논평 : 이성운(동국대 불교학과 박사과정 수료)
'겨울의 유산'에 나타난 한·일불교
발표 : 김호성(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논평 : 이연숙(고려대장경연구소 연구원)

일본불교사연구소

2009년 상반기 <영어권문화연구> 원고 모집

동국대학교 영어권문화연구소는 2009년 7월에 발간 예정인 『영어권 문화연구』(2호)에 게재할 논문을 공모합니다. 『영어권문화연구』는 향후 다양한 학제간 연구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인문학 연구의 육성을 위해, 관심 있는 인문학 연구자들의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 학술지명** : 『영어권문화연구』(여름호)
- 발간 주제** : "인문학과 관련된 자유 주제"
- 요요 자격** : 교수, 연구원, 강사, 대학원생(박사과정) (단, 연구소장 추천과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있을 경우에는 석사과정 대학원생도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있다.)
- 요요 편수** : ○ 편 내외
- 논문 분량** : 200자 원고지 100-150매
- 논문 마감일** : 2009년 5월 30일
- 발간 예정일** : 2009년 7월 1일
- 제출 방법** : 한글97(한글 97 이상)로 작성된 논문을 E-mail 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 논문 제출처** : E-mail rralra1028@naver.com(장보경 조교) 홈페이지 cafe.daum.net/iecs
- 문의처** : 100-715 서울 중구필동 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영어권문화연구소 (연락처 : 02-2260-8530)

* 논문 작성 요령은 연구소 홈페이지 내 웹부 투고규정(cafe.daum.net/iecs)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며 투고규정을 따르지 않은 논문은 반환시킬 수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영어권문화연구소

달 하나 천장에

미래에 대한 계획과 도전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딴 짓을 피우거나 졸고 있는 경우에 느닷없이 질문한다. 여러분은 초등학교 때 어떤 꿈을 품었나. 눈을 감고 과거로 돌아가 한 번 회상해보라고 한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리고 지금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는지. 그리고 점점 현재로 되돌아온다. 이러한 잠깐 동안 분위기는 다소 숙연해진다. 대부분 어렸을 적 꾸었던 꿈들이 많이 작아져있거나 희미해져 있다고 느낀다.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 번 힘을 내어보리라 다짐하는 듯 보이지만, 수업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전 모습으로 되돌아간다.

지금 시작하라

선생의 다소 엉뚱한 이런 행동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는 관심 밖이다. 다만 한 두 명의 학생이라도 지금부터 의미있는 목표를 다시 찾거나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기만 한다면, 그 것으로 족하다. 누구나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이루고 싶은 꿈과 누리고 싶은 미래를 가슴에 품고 산다.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 이루지 못한 꿈이 될 것인지, 아니면 실현된 현실이 될 것인지는 지금 얼마만큼이나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사회적 편견이나 주위의 환경 탓으로 현실을 원망하거나, 시험해보지도 않은 자신의 잠재력을 의심하는 경우를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목표, 동기부여 그리고 행동

선생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학생들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목표 달성을 위한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일 뿐이다. 얼마 전 공인회계사 1차 합격자 발표에서 나타난 우리대학의 선전팀은 학생들의 저하된 사기와 훼손된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 최근 3년간의 선전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 수가 늘어나고, 수험 준비를 위한 학습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는 듯하

다. 늘 부족한 학습 공간과 수험 지원 등 학생들에게 하나라도 더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니, 선생으로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더불어 열악한 환경에서도 좋은 성과를 달성한 학생들의 노력과 회계학과 교수님들의 변함없는 노고와 격려에 감사드린다.

시작이 반이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 미래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나면 때우기 급급했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아깝고 소중한 자신임을 깨달을 것이다. 목표를 향해 다가가는 발걸음이 때론 무겁고 힘이 들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꾸준히 이겨나가길 바란다. 미래에 대한 지치지 않는 도전과 철저한 준비가 있다면, 여러분의 성공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도전에 대한 당부

다만 여러분의 도전과 준비과정에도 몇 가지 당부하고 싶은 바가 있다.

첫째, 공인회계사 합격은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대학생활 동안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맘껏 고민하고 준비하라. 둘째, 말보다 행동을 앞세우는 성실함을 갖춰라. 셋째, 중간 중간 나타나는 도전의 결과를 경계하여 받아들일 것이며,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남의 탓으로 돌리지마라. 넷째, 경쟁자의 성과를 시기하지 말고, 진정어린 박수를 보내라. 다섯째, 중간 결과를 철저히 분석해서,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여섯째, 이론 성과에 겸손하고, 주위의 도움과 격려에 감사하라. 일곱째, 이론 성과의 일부를 도움이 필요한 주위 사람에게 베풀어라.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할 수 있을지 의심하지 말 것이며, 선생님은 그렇게 하셨냐고 묻지 마라. 이런 의구심은 여러분의 성공에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글을 쓰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 난 역시 선생이 천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동문칼럼

반가운 만남

우연한 기회에 우연한 장소에서 예상치 못한 모교 동문 선, 후배와의 만남은 나에게 있어서는 항상 반가운 만남이다. 그러나, 모교를 떠난 후 나는 운이 없어서 그런지 반가운 만남의 기회가 몇 번 없었다. 심지어, 미국 유학시절에도 다른 학교 출신들은 동문모임을 자주 하는데, 나는 늘 혼자였다. 사회에 나온 후에도 반가운 만남의 기회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나에게도 최근에 반가운 만남이 있었다. 과거 몇 번의 반가운 만남은 짧은 것이었지만, 이번 만남은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아 더욱 반갑다. 얼마 전 나와 함께 일 할 스태프를 채용하기 위해 면접을 하였고, 우연히도 동문 후배가 지원을 하였다. 결과가 좋아서 지원한 동문 후배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나는 그 반가운 만남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행운을 누리게 된 것이다.

나와 함께 일하게 된 동문 후배는 다른 후보자에 비해서 소위 말하는 학벌이나 경력 면에서 부족 한 듯 했으나, 면접관을 설득 시킬 수 있는 의사표현 능력이 탁월했으며, 진지하고, 자신감이 넘쳤고,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솔직히 얘기할 수 있는 당당함이 있었다. 나는 자랑스러웠다. 동학인의 진정한 모습이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소위 스펙은 당연히 명문대 출신에 높은 어학점수, 해외연수 등 이러한 것이 공식화 되어 있는 현실에서, 부족한 듯 하나 자신이 해왔던 일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여 주었던 그 동문 후배가 자랑스럽고 고마웠다. 그 결과 중소기업에서 국내 최고의 대기업에 당당하게 경력입사를 하게 된 동문 후배와의 만남, 흥분되고 반가운 것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후배들은 스펙을 올리는데 열중 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스펙이 취업을 좌우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요구되는 스펙을 맞추기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하지만, 스펙이 전부 만은 아니라는 점도 명심했으면 한다. 면접 시 기업에서 지원자에 대한 평가는 그 지원자의 의사표현 능력, 문제해결 능력, 인성, 조직 적합성 등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결국, 스펙만 좋다고 취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이제부터 언제 찾아 올지 모르는 또 다른 반가운 만남을 기대한다. 나의 정말 행복하고 반가운 만남을 오랫동안 누릴 준비를 해야겠다.

이항복
정의 91출
삼성전기 수석변호사



동대신문을 읽고

책임감 더해진 동대신문

이번 신문은 학교 커뮤니티 사이트인 'D-Yeon'에서 처음 접했다.

누군가가 동대신문의 기사를 인터넷에 올린 것이었다. 개교기념호를 맞이한 총장과 이사장의 축사와 더불어 총장과 편집장 간의 대담 등이 올라왔다. 입학지원관리시스템 등으로 학내 갈등이 첨예해져서 동대신문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느낌을 받은 한 주였다. 학생기자들이 느껴야 할 책임감이 무거웠을 것이라 생각도 든다.

1면은 파격적이었다. 기사는 없고 사진만이 지면을 채우고 있었다. 대신 수많은 문단, 교수, 직원들이 지면의 주인공이 됐다. 103년 역사를 일군 이들이기에 그들이 1면을 장식한 것은 의미 있었다.

자랑스러운 동국인에서는 균형이 아쉬웠다. 자랑스러운 동국인이 인문, 사회와 예술계에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면에서는 자연과학, 공학을 전공한 자랑스러운 선배는 없었다. 균형을 맞추는 기획도 필요했다. 이런 부분을 차지한다면 신경영, 이미연, 최진식, 구상찬 동문 등 정말 자랑스러워할만한 선배를 개교기념호를 통해 만날 수 있어 좋았다.

'미래사회와 대학'이라는 연재기획은 일반 학생으로서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다. 이번 연재기획은 미래기획위원회라는

장기비전을 기획하는 조직이 생긴 것을 즈음해 구성된 듯 하다. 거시적 담론을 얘기하는 면이 어렵게 느껴지긴 했지만, 미래사회에 대비해 대학이 어떻게 변모해야 할지에 대해 학내 구성원들이 고민을 해보는 기회가 될 것 같다.

여론·칼럼면의 학생 없는 학생증은 이번 신문에서 가장 공감 가는 기사였다. 본인은 학교가 이번에 학생증 연계계약을 맺은 은행과는 다른 은행을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학생증 교체기 번거롭고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이런 불만을 표집어 줬다는 것이 의미있었다.

입학사정관제도를 주제로 한 '꿈을 키우는...' 이란 페이지는 의미 있었다. 성적 뿐만 아니라 잠재적 능력과 가능성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도가 사교육 시장에 잠식당할 것을 우려하는 칼럼이었다.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입학사정관제도가 꿈을 키우는 이를 위한 입학전형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

동국인 사이트 등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더욱 가까워진 동대신문. 학업과 신문제제를 병행하기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책임감을 느끼며 항상 발 빠른 뉴스를 학우들에게 제공해주는 신문이 되길 바란다.

이상철
경영대학 회계학과 교수



보리수

오월,

감사에서 찬탄으로

싱그러운 초록의 오월은 정말 감사하는 달이고, 감사하는 맘을 마음껏 전달할 수 있는 달인 것 같다.

오월을 가정의 달이라 불리게 한 어린이날, 어버이날 뿐 아니라 스승의 날도 들어있다. 그리고 동국인에게 개교기념일도 있고, 부처님오신 날까지 이 달에 있다.

잘 자라서 고맙고, 잘 길러주셔서 고맙고, 잘 가르쳐주셔서 고맙다. 부처님의 법을 배울 수 있어서 고맙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다. 기쁨과 감사는 절로 감탄하는 칭찬과 찬탄으로 이어진다. 칭찬은 바로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게 하는 방편이기도 하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과거세 수행하실 때 불사(佛沙) 부처님의 훌륭한 모습을 보고 환희심이 넘쳐서 칠일 낮 절일 밤 동안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찬탄의 계송을 읊으셨다. <『佛本行集經』>

하늘 위 하늘 아래 부처님 같으신 분 없고
天上天下無如佛
시방세계에도 또한 견줄 이 없도다.
十方世界亦無比
세간에 있는 바를 내가 다 보아도
世間所有我盡見
모두 다 부처님 같으신 분 없도다.
一切無有如佛者

해주스님
불교대학 불교학과 교수



『화엄경』에는 보현보살의 열 가지 원으로 모든 수행을 포섭하고, 구도자 선재등자에게도 발원하게 한 보현행원(普賢行願)이 교설되고 있다. 그중에 부처님을 찬탄한다는 칭찬여래원(稱讚如來願)이 있다.

부처님의 모든 공덕을 갖고 깊은 수승한 지혜로 끝없이 찬탄하겠다는 원인 것이다.

또 모든 공덕을 따라 기뻐한다는 수희공덕원(隨喜功德願)이 있으니, 모든 부처님께서 발심, 수행, 성도, 교화, 열반하시며 쌓으신 모든 선근(善根)을 내가 다 따라 기뻐한다는 원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들에게 티끌만한 공덕이 있더라도 내가 다 따라 기뻐하며, 모든 수행자들이 닦은 공덕도 끝없이 다 따라 기뻐하겠다는 것이다.

바로 이 칭찬하고 따라 기뻐하는 원과, 그 원을 청정한 몸과 말과 뜻으로 실천하는 원행이 곧 자기도 할 말하고 다른 이들도 해탈케 할 수 있는 수행인 것으로 설해지고 있는 것이다.

싱그러운 오월에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성장하고 증장할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부처님과 무한한 인연의 수많은 공덕을 두 손 모아 찬탄해 올린다.



잇갈린 만남
개교기념식이 열린 지난 7일, 상록원 앞에서 문과대 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학생들이 학제개편 반대 시위를 진행했다. 박인우 문과대 학생회장은 개교기념식 행사를 위해 상록원으로 들어가는 총장과 이사장을 향해 학제개편 반대를 강력히 주장했다.
김윤수 기자
yshero21@dongguk.edu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전문가 과정 모집

제1기 브랜드관리 전문가 과정 모집

- 타 단과과정과의 차별점
 - 교육부인가 정규 MBA스쿨 내에 있는 최초의 브랜드관리전문가과정(전문성, 신뢰성 확보)
 - 차별화된 강사진 (국내외 브랜드 저명 강사진, USC 박충환 석좌교수 포함)
 - 풍부한 브랜드 실무 중심 강의 (브랜드 실전 전문가의 현장중심 강의)
 - 브랜드자문 모뎀 시행(선택가능, 1회 1시간씩 주 2회) 브랜드관련 현안에 대한 자문, 국내 최초)

● 특징

- 동국대 총장명의로의 수료증 수여
-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MBA School) 브랜드MBA 입학사 우대(등록금 감면 혜택)

● 운영 방식

기본 모듈	선택 모듈 (수강생 의사에 따라 선택 가능)
- 6주 브랜드관리 강의	- 브랜드관련 협업 자문 : 1회 1시간씩 주 2회 (총 12회) 자문
- 수업료 200만원	- 자료료: 수업료의 별도로 100만원
- 강의 일정	- 자문 일정 : 자문교수와 협의하에 자유롭게 결정
화요일(19:00 - 21:50)	(예, 화요일, 목요일 18:00-19:00)
목요일(19:00 - 21:50)	

● 모집 요강

교육대상 : - 기업체의 브랜드, 마케팅, 광고홍보 관련 부서 종사자
- 광고, 디자인, 브랜드/마케팅 컨설팅 등 전문업체 종사자
- 브랜드관리에 관심이 많은 대학 졸업자 및 대학원생
교육기간 : 2009년 6월 9일 ~ 7월 16일, 주2회 (총 12회), 매주 화, 목요일 19:00~21:50
교육장소 : 동국대학교 경영관 201호
선발방법 : 서류심사
서류 제출일 : http://mba.dongguk.edu/ 에서 입학지원서 를 다운로드 한 뒤, 이메일 brand@dongguk.edu로 제출
서류 접수기간 : 2009년 5월 31일(일)까지
입학자 발표 : 2009년 6월 2일(화)에 개별통보함
등록 기간 : 2009년 6월 2일 ~ 8일
수료료 납부 : 200만원 (6월 8일까지 납부) (등록금 납부는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입금, 예금주 : 동국대)

문의처 :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브랜드관리전문가과정 담당자
Tel) 02-2260-8885 E-mail) brand@dongguk.edu

정성적 마케팅 조사방법론 전문가 과정 모집

마케팅 정성적 연구조사 분야의 최고 석학(Russell Belk, Eric Arnould)을 초빙, 국내외로 특별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마케팅조사의 최고 프로페셔널이 되십시오.

교육대상

마케팅 조사회사 및 대기업 마케팅 팀 임직원

교육기간

2009년 6월 3일 ~ 7월 10일, 주2회(총 10회), 6월 22일 ~ 27일 휴강(Break) 매주 수, 금요일 19:00~21:50

교육장소

동국대학교 경영관 2층

서류 제출방법

http://mba.dongguk.edu/quail 에서 '입학지원서' 를 다운로드 이메일 quail@dongguk.edu로 제출

서류 접수기간

2009년 5월 31(일요일)까지

등록기간

2009년 5월 1일 - 6월 2일

수료료 납부

200만원 입학지원사이트 참조(신한은행 가상계좌 온라인 입금)

문의처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정성적 마케팅 조사방법론 과정
Tel) 02-2260-8884-8885 E-mail) quail@dongguk.edu

특징

- ▶ 동국대학교 총장명의로의 수료증 수여
- ▶ 조사연구분야에 국내최고 권위의 한국조사연구학회의 인증서 수여

금주의 식단

동국관	
월 (5/18)	삼선적구이(2000)/치즈돈가스(3000)/제육비빔밥(2200)/김치육개장(2500)
화 (5/19)	닭강정(2000)/돈가스(2500)/매운-나치용볶음밥(2200)/떡볶이불고기(3000)
수 (5/20)	탕수육(2200)/함박스테이크(2500)/새싹참치캔비빔밥(2200)/장미알솜밥(2500)
목 (5/21)	돈육계란찜(2200)/치킨가스(2500)/날치알솜밥(2200)/살랑탕(2500)
금 (5/22)	김비결단(2000)/고구마돈가스(3000)/미트볼라이리스(2000)/순두부찌개(2500)

상록원	
월 (5/18)	참치이채볶음(2000)/돈가스(2500)/최고기볶음밥(2000)/살랑탕(2500)
화 (5/19)	돈육김치볶음(2200)/고구마돈가스(3000)/산채비빔밥(2200)/순두부찌개(2500)
수 (5/20)	해물계란(2000)/치킨가스(2500)/오심불고기덮밥(2200)/날치알솜밥(2500)
목 (5/21)	돈육콩나물볶음(2200)/돈가스(2500)/튀김비 이채볶음밥(2200)/사브갈국수(2500)
금 (5/22)	방도리탕(2200)/치즈돈가스(3000)/오징어덮밥(2200)/김지탕(2500)

아리수	
월 (5/18)	닭갈비덮밥(2200)/오심불고기덮밥(2200)
화 (5/19)	김치치즈덮밥(2200)/말무비빔밥(2200)
수 (5/20)	제육비빔밥(2200)/허리라이스(2000)
목 (5/21)	치킨골스또밥(2200)/부대찌개(2000)
금 (5/22)	새싹참치캔비빔밥(2200)/해물덮밥(2200)

2009학년도 후기 외국인 대학원 신입생 모집

1. 모집과정

석·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과간 협동과정

2. 모집인원

학과과정별 각 학과 약간명

3. 지원자격

가.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나. 국내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16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하고 학사(석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국내·외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 취득자 또는 2009년 8월 이전 취득예정자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구술(면접)고사

5. 전형일정

구분	일정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2009. 5. 11(월) ~ 5. 22(금)
전형일	2009. 5. 30(토)
합격자발표	2009. 6. 9(화) 예정
등록기간	2009. 7. 1(수) ~ 7. 3(금) 16:0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시 홈페이지(www.ipsi.dongguk.edu) 모집요강 참조
서울캠퍼스국제화추진단 외국인서비스센터 T. (02)260-8881~2

국제 화추진단

논단

개성공단 사태와 '대담한 행동'

지난 15일 북한은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폐쇄를 선언하고, 이에 근거한 새로운 법과 규정, 기준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제시한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면 개성공단에서 나가지 못하겠다는 폐쇄 협박과 함께였다.

연일 방송과 신문은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과 남북관계 향후 전망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는 남북한 정부 모두에게 심각한 경제적 악영향을 발생시킬 것이며,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시킬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승부수

구조적 경제위기와 만성적 '부족의 경제'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 개성공단을 통한 외화 수입의 중단은 심각한 위협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북한은 일종의 '승부수'를 던졌다고도 볼 수 있다. '자력갱생'을 전제로 '벼랑끝 전술'을 통해 이익을 만들어보겠다는 '못된 심보'다.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100여 개의 기업이 도산 위기에 몰리게 되고 많은 인력이 실직상태에 빠지게 된다. 또한 국회 입법 절차상 보고서(2009.4.24)에 의하면 1조 3,6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성공단이 남북 경제교류협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공단 폐쇄는 남북관계의 돌이킬 수 없는 국면 진입이라는 부정적 상징효과를 미

미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일방적 통보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라는 점이다. 이미 작년 12월 1일 북한은 육로 통행의 제한 및 차단 통보, 4월 21일 남북한 간 개성접촉에서 개성공단의 제도적 특혜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북한은 예견된 수순대로 개성공단에 대한 압박을 전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관련 통보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안정적 상황관리에 실패한 정부도 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핵심은 현재 악화일로로 빠져들고 있는 개성공단 문제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협상의 추진력을 마련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우리는 현 사태를 개성공단 문제뿐만 아니라 한층 더 넓게 보는 안 된다.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전체적 조망과 이에 근거한 입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관계는 '고르디우스의 매듭'(Gordian knot)처럼 복잡하게 얽혀 풀리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대담하게 행동할 때만 풀 수 있는 것이 지속되고 있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대담하게 행동할 때만 풀 수 있는 것이 지속되고 있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대담하게 행동할 때만 풀 수 있는 것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5월 16일 노동신문을 통해 "남북공동선언에서 탈선하면 대결과 전쟁밖에 빛어질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남북 정상간 합의한 6·15와 10·4 선언의 이행을 촉구한 것이며, 이 선언의 이

행이 남북관계를 재개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제시한 것이다. 이미 북한은 지속적으로 양 선언의 이행을 남북관계 진전의 척도로 삼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왔다.

전화위복의 기회로

우리 정부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개성공단 폐쇄 위기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기회로 전환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총체적인 대비책과 함께 개성공단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

우선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경우까지 가도 않도록 안정적 상황관리를 동시에 협상의 추진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최후통첩은 협상의 가능성을 전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성공단 폐쇄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협상국면을 열고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개성공단 협상과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억류사건을 분리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즉 분리대응의 원칙과 개성공단 협상을 지속하면서 북한에 대해 우리정부의 관계회복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다.

둘째, 관계회복의 메시지로 6·15와 10·4 양 선언에 대한 진일보된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이다. 이는 양 선언에 대한 '창조적 재구성'의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즉 합의 사항의 인정 및 이행 그리고 양 선언의 현실적 실행을 위한 실용적 접근이라는 원칙에 근거하자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양 선언 이행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즉각적인 협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단 합의는 존중하되, 점진적·단계적 접근과 현실 가능성에 입각한 이행이라는 원칙으로 남북협상을 진행하면 될 것이다.

셋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총체적인 환경조성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5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클린턴 전 대통령 인사의 방북 추진 등 앞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전개될 것이다. 또한 미국은 내년 5월로 예정된 NPT 재평가회의를 앞두고 북핵문제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만들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북핵 문제의 해결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총체적 전략과 구체적 실천을 전개해야 한다.

관계회복, 실천할 때 가능

이렇듯 개성공단의 안정적 상황관리와 함께 대북정책의 '창조적 재구성'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환경조성에 우리 정부의 대담한 발상의 전환과 접근이 요구된다. 남한의 '기다리는 전략'과 북한의 남한 '무시하기' 전략의 치킨게임은 남북 모두에게 엄청난 리스크를 남길 것이다. 21세기 치열하게 전개되는 국제경쟁구조에서 이념보다는 실용, 감동보다는 협력이 요구된다. 위기는 기회다. 어쩌면 이 사태가 남북관계 회복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 남은 것은 실천이다.

메아리

양팡테리블과 대학스포츠

▲양팡테리블. 이 표현은 장 콕토의 '양팡테리블'이란 소설에서 유래된 단어다. 소설 속 양팡테리블의 의미는 '무서운 아이들'이다. 소설 '양팡테리블'은 순수한 아이들이 주변과의 단절된 생활을 통해서 광기와 고립에 이르는 과정을 그린다. 장 콕토는 소설을 통해 아이들만의 순수함과 더불어 잔인함을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처음 소설 속 양팡테리블은 무서운 아이들이란 뜻이었다. 최근에는 어린 나이에도 뛰어난 기량을 보이는 스포츠 스타를 일컫는 말로 쓰인다. 치고 올라오는 후배가 선배에게 무섭게 비쳐져 이런 별명이 붙지 않았을까.

▲개교기념일인 8일이었다. 우리대학과 중앙대의 MBC배 전국대학농구대회

결승전이 열렸다. 4학년 주전 대부분이 프로팀에 진출하며 전력이 약화했다는 평을 들던 우리대학이 결승전까지 진출한 것이다. 놀라운 것은 주전 엔트리였다. 1학년 3명, 4학년 1명, 3학년 1명. 평균연령이 스물 한 살이다. 이날 우리 대학은 패했다. 그러나 1학년 김종범, 김운태 등은 양팡테리블로 불리며 패배 속에서도 희망을 보여줬다. 상대 가드를 앞에 두고 3점 라인 및 발자국 뒤에서 3점 슛을 성공시키는가하면, 신장의 열세 속에서도 놀라운 돌파를 보여줬다.

▲코트는 뜨거웠지만 관중석은 냉후했다. 지방에서 열린 대회라는 점이 이윽기도 했지만 관중이 없는 대학스포츠의 단면을 보여줬다. 수많은 스포츠 스

타를 배출했던 한 사립대학은 최근 축구, 야구, 농구 팀을 사실상 해체했다. 내년부터 신입생을 뽑지 않기로 한 것이다. 프로스포츠에 소속된 대학스포츠의 미래가 어둡다는 판단에 따른 선택이었다.

과거 대학스포츠는 대학에서 화합의 장이자, 축제였다. 1980년대 우리대학 야구부가 그랬다. 오죽하면 동대문 운동장을 '동대 운동장'이라고 불렀을까. 우승을 하고나면 동대문운동장에서 우리 대학까지 오는 도로는 풍물패와 우리대학 학생으로 가득 찼다고 한다. 80년대 우리대학은 야구로 하나 될 수 있었다.

▲우리대학 농구부는 과연 양팡테리블이었다. 비록 결승전에서 고배를 마셔

야 했지만 주축선수들이 신입생이란 점을 감안할 때 준우승은 얼마나 값진 결과인가. 박수쳐주는 이가 많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래서 더욱 아쉽다. 스포츠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도 한다. 최근 들어 학내 갈등이 첨예하고 서로간의 공통분모를 찾기 힘들다는 느낌을 받는다. 대학스포츠가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나친 억지일까. 학생, 교수, 직원이 공동체원단을 구성할 수도 있다고 본다. 지방 경기라면 WBC처럼 중강당에서 TV를 보며 응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동국대학교라는 이름아래 소통하고 뭉치는 일은 함께 즐기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때 가능하지 않을까.



정동훈 편집장 gfd1226@dongguk.edu

사설

신뢰 회복이 급선무다

입학지원관리시스템을 두고 학생회와 학교 측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학생회는 2007년부터 3년째 이어진 학제개편의 비민주적 절차를 지적하고 있다. 입학지원관리시스템 자체도 상임주위가 지나치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학교 측 의견과는 평행선을 달린다.

학교 측은 지난 3년 동안 충분한 설명회와 토론회의 자리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학발전을 위해서 학문융합과 학제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학생회와 학교가 평행선을 걷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두 주체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다. 막연한 불신이 서로의 의사소통을 가로막고 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려는 노력을 했음에도 학생회가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학생회는 대등한 대화주제로 자신들을 인정하지 않는 학교 측에 대한 불신감이 극에 달했다. 두 주체의 이런 입장은 시위 현장에서의 잦은 고성과 몸싸움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간극을 좁힐 수 없다. 서로에 대한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 신뢰회복은 두 주체가 서로 한 발자국씩 양보할 때 가능하다.

그리고 학제개편이 왜 필요하며,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에 대한 본질적인 얘기가 이뤄져야 한다. 발전적인 논의는 신뢰를 회복하고 본질을 얘기할 때 가능하다.

본사가 2008년 총학생회 선거를 즈음해 '역대 총학생회장님 말하는 좌담회'를 기획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91년도 총학생회장을 역임한 정우식 동문은 "학교는 운명공동체다. 학생회는 간부들에 의해서만 운영될 수 없다. 학교 당국도 마찬가지다. 학교가 학우들의 대표로서 학생회를 인정해 줘야만 학교운영의 파트너로서 학생들을 인식할 수 있다. 학생, 교직원, 교수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동국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공동의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 이것은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정우식 동문의 말처럼 학생회와 학교 더불어 교수사회는 동국대학교라는 한 배를 탄 운명공동체다. 펄레야 펄 수 없는 사이란 의미다. 그렇다면 머리를 맞대고 동국대학교 전체의 발전을 고민해야 한다. 이것이 어떤 일보다 자신이 속한 '주체'를 위하는 일이다.

만평

정명근 gmg@naver.com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오영교, 편집인 김용현, 편집장 정동훈, 인터넷 동대신문 http://www.dgupress.com,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구독문의 :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지금 이대로 멈추지 않겠다 도전이야말로 역동하는 가능성, 굳은 의지와 행동하는 열정으로 더 뜨거운 변화를 이끌어내겠다

내일 나는, 더 큰 내가 된다 변화의 큰 틀,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9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Table with 4 columns: 대학원명 (College Name), 원서접수기간 (Application Period), 전형일 (Exam Date), 홈페이지 (Homepage). Lists various graduate programs and their respective exam dates and application periods.

*전형일장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www.dongguk.edu) 모집요강 참조

<창업보육센터 신규건립지원사업> 선정 - 중소기업청,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사업 선정 - 교과부,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 교과부





우리대학 옥상정원 '하늘마루' 100% 즐기기

옥상정원에 심겨진 식물은 무엇?



사진=김윤수 기자

동약인의 쉼터 옥상정원 하늘마루 각양각색, 6개의 테마를 즐겨라!



1. 부처꽃

부처꽃은 5~8월에 홍자색으로 꽃이 총총이 달린 것같이 보인다. 부처라는 이름과는 달리 부처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꽃이다. 꽃의 모습만으로는 어디에서도 부처와의 연관성을 찾아내기 힘들다. 부처꽃이 '부처'라는 이름을 얻게 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넓은 들판에 홀로 우뚝하게 솟아 자라난다는 데서 그 이름의 유래를 찾을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이 꽃을 음력 7월 15일인 백중에 부처님 앞에 많이 올렸다고 해서 '부처꽃'이란 이름을 얻었다고 한다.



2. 동자꽃

동자꽃은 눈에 잘 띄는 고운 주홍빛 꽃잎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수수하고 소박한 느낌을 준다.

동자꽃이란 이름은 스님을 기다리다 겨울 추위에 죽은 동자승 이야기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산속 작은 암자의 노스님이 겨울 채비 허려 마을로 내려간 사이, 열어죽은 동자승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동자꽃. 동자승이 묻힌 자리에 소담스레 피어난 꽃이라는 전설이 있다.

이정민 기자
jeong0424@dongguk.edu

강의실 창 밖 너머로 따사로운 햇살이 들어오고, 열린 창문 틈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코끝에 맴도는 이때 우리는 누구나 산으로 바다로 나들이를 생각한다. 하지만 연속되는 강의와 밀려오는 과제로 나들이 갈 시간을 따로 낼 엄두를 못내는 것이 우리의 슬픈 현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 옥상정원 하늘마루가 있으니!

하늘마루는 지난 11월 24일부터 개방돼 우리대학 학생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현재 하늘마루는 △학림관 △학생회관 △동국관 △해화관 △학술문화관 △만해관 등 6개 건물의 옥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각의 하늘마루는 그들만의 특색을 갖는다.

건물별 하늘마루의 특징을 알아보자.

해화관에서 즐기는 두 가지

해화관 하늘마루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자연 풍경을 즐기며 점심식사를 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곳'이다. 해화관 하늘마루에는 하늘아래라는 매점에서 파는 간단한 먹거리를 먹으며 정원 풍경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지정된 휴연 구역이 있어 흡연자들도 담배를 즐기며 하늘마루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테이블식 벤치를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이 과제를 하거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차 한 잔의 여유를 갖는 곳

동국관 하늘마루는 말 그대로 공장 중

간 공간에 차 한 잔을 즐기며 쉴 수 있는 쉼터다.

동국관 하늘마루의 특징이라면 키가 큰 화초보다 키가 작은 화초들이 많다는 점이다. 작은 화초들과 어우러지는 건물 밖 풍경은 차를 마시며 눈요기 하기에 제격이다.

동국관 수업이 끝나고 다음 수업까지 잠깐의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면 동국관 하늘마루에서 차 한잔 마시는 여유를 가져보라.

문화관에서 더위를 날리다

학술·문화관 하늘마루는 다른 곳과 달리 분수를 볼 수 있는 곳이다. 분수의 시원한 물줄기를 즐기며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학술·문화관 하늘마루를 추천한다.

곧 다가올 무더운 여름을 시원한 물줄기를 맞으며 맞이하는 것은 어떨까.

일석이조, 휴식과 공연

만해관 하늘마루는 아름다운 옥상정원의 풍경을 느끼며, 일석이조로 소규모 야외무대를 이용한 공연문화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팔정도나 내려다보이며 학교 전체를 볼 수 있는 전경을 가지고 있는 만해관 하늘마루는 소규모 야외무대를 마련해, 우리대학 학생이라면 누구나 그곳에서 공연 등을 하며 즐거운 휴식과 놀이 두 가지를 같이 취할 수 있다.

휴식과 놀이 두 가지를 동시에 즐기고

싶은 자. 만해관 하늘마루로 초대한다.

진정한 쉼을 느끼는 곳

학림관에서 맞는 공강 시간, 남산을 가기에 시간이 부족하고, 강의실에 가 있자니 몸이 근질근질 거릴 때 학림관 하늘마루를 찾아가자.

학림관 하늘마루는 동국관 하늘마루와 같이 말 그대로의 쉼터이다. 넓은 하늘을 지붕삼아 향긋한 자연의 내음 속에서 맞이하는 쉼. 학림관에서 느껴보자.

작지만 알찬 화원, 학생회관

현재 학생회관 하늘마루를 이용하기 위해선 백상응원단실을 경유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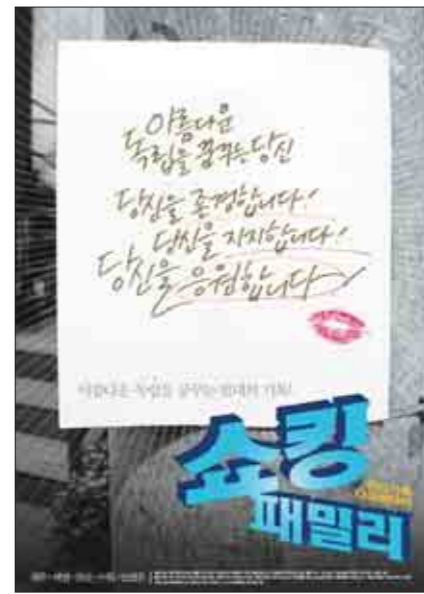
백상응원단실을 지나 만나는 학생회관 하늘마루는 아담한 작은 화실과 같다. 작지만 알찬 화실처럼 학생회관 하늘마루는 규모는 작지만 여러 가지 화초들로 알찬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마가렛란 꽃이 피어 그 풍경이 더욱 더 아름답다. 평소 화초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학생회관 하늘마루에 찾아가길 권한다.

친구들과 산이나 바다로 나들이가기 좋은 달 5월. 시간이 없던 핑계로, 과제가 많다는 핑계로 강의실에서만 지내지 말고 가깝고도 알찬 하늘마루에 방문해 향긋한 옥상정원의 자연에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

이정민 기자
jeong0424@dongguk.edu

유지나 교수의 독립 영화 이야기

〈3〉 쇼킹 패밀리



삶의 핵심이 사랑이라면, 그것은 관계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한국사회에선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족관계라고 설정하는 관행이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등장하는 공익광고, 아빠 힘내세요, 이미지와 문구가 나오면서, '가족이 희망입니다', 같은 단골문구가 격려메시지로 나온다.

이렇듯 가장 소중한 관계로 홍보되는 가족관계, 그 속에 놓인 개인의 삶을 탐구하는 '쇼킹 패밀리'는 생기발랄한 다큐멘터리이다. '쇼킹 패밀리'는 전주영화제(06년 관객/평론가상)를 비롯하여 여성영화제(옥광상), 정동진독립영화제(뽕그랑 동선상) 등 영화제를 돌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 끝에 마침내 지난해 중앙씨네마에서 개봉될 정도로 흥미진진한 다큐멘터리이다.

영화를 만든 스텝 자신의 가족이야기를 털어놓는 이 다큐의 힘은 솔직하고 발랄한 현실 들여다보기이다. 그 속에 유머까지 있어 즐겁기도 하려니와 가족관계로 고통받은 이들을 치유하는 힘까지 발휘한다.

가족 안에서 훼손되고 있는 나를 찾아라

20대 세대는 가족사랑이란 미명하에 자행되는 간섭으로부터 독립해 독신으로 살아간다. 월세와 온갖 세금에 시달리는 누추한 삶이지만 그건 자유로운 삶의 대가이다. 시택식구 뒤편다끼리로 살아가면 30대 경에는엔 영화제작기간이 이혼과정이기도 하다. 감독이기도 한 경순은 이혼 후 딸과 사는 싱글맘이다. 스텝과 공동체 삶을 꾸려가는 그녀는 이미 대안가족을 실현하는 중이다.

스텝 엘리와 생일파티, 모임에서 가족판타지의 부조리와 가족으로 인한 상처들이 줄줄이 고백된다. 이렇듯면 엄마에게 얻어맞았던 어린 시절 상처가 남아서 세월이 흐른 이제와서 왜 그랬는지 물어본다. 그때 살기 힘들어서 그랬다는 엄마의 변명성 대답이 돌아온다. 이렇듯 아픈 가족사는 세월이 흐른 뒤 비극성을 넘어 어이없는 웃음으로 풀려나간다.

우리가 주입받은 가족개념도 검증된다. 전통가족 수호를 주장하며, '여자가 다 참고 살아야 가족이 행복하다' 라는 주장, '예술가의 장한 어머니상' 수상식이 증언하는 헌신적 모성상 찬양론, 그 가운데서도 가족을 중시하는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 입양아들을 만들어냈는가? 라고 되묻는 입양인 빈센트의 지적은 아프다. 이렇듯 다양한 상황과 입장들이 틈틈이 끼어들면서 표리부동한 가족판타지의 속내를 벗겨나간다.

여러 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평범한 가족사란 존재하기 힘들다. 그래도 가족이기에 비밀을 묻어둔 이들의 아픔과 원망을 솔직하게 풀어내는 경순감독의 재능은 진정성으로서 다큐의 매력과 진실의 힘을 증명해낸다. 먼저 자기 속내부터 털어놓고 보는 고백이 전염된 탓인지, 이 독특한 가족탐구 다큐는 개인적인 동시에 관객 각자의 가족경험과 접속하게 만드는 공명의 파장을 퍼뜨린다. 그래서 관객과의 대화시간엔, 늘 제 가족사의 상처를 말하고 싶어요, 라는 열기가 감지된다. 가족도 관계일진대, 개인의 억압과 업보로부터 유연한 다양한 대안가족의 재구성엔 이상이 아니라 이미 현실이다. 인류는 자유롭게 살 인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TIP-

1. 혈연가족을 선택적인 절대 진리로 여기는 사람들의 고루한 생각이 '쇼킹' 히기에 제목을 〈쇼킹패밀리〉라고 붙였다고 한다.
2. 필자의 사회동생인 경순감독은 앞으로 한국 다큐를 대표할 독창적이고 재기발랄한 최고의 기대주라고 믿는다. 〈애국자게임〉같은 그녀의 다른 다큐들을 보면 그녀의 재기발랄 문제의식에 공감할 것이다. 한국판 마이클 무어의 탄생이라고나 할까?